

연구보고서 2005-28

**주거안정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의 적절성 평가와 개선방안**

박문수 신명호
김종수 김홍수
박은희 홍성혜

(사)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

연구보고서 2005-28

주거안정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의 적절성 평가와 개선방안

박문수	신명호
김종수	김홍수
박은희	홍성혜

(사)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

제 출 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연구원과 용역계약한 『주거안정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의 적절성 평가와 개선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12월
한국도시연구소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주택보급률이라는 개념이 별반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중산층을 위한 고급주택의 공급이 결국 서민 주택의 재고를 늘리게 된다는 필터링(filtering) 이론도 한국의 주택시장에서는 통용이 안 되어 왔다. 사실 그동안 주거의 복지적 측면보다는 주택산업의 수익성을 더 중시해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고 보면, 큰 평형의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제와 사회 각 부문에서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즈음,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불평등의 해소 방안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그간의 많은 조사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지고 있듯이, 저소득층 당사자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 중에서 주거 문제를, 의료, 교육 문제등과 함께 첫 손가락에 꼽고 있다. 늘상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상식을 넘어서는 까닭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완전한 빈곤 탈출은 참으로 힘겨운 과제이다. 다행히도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는 이러한 주거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거보장 제도를 확충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 제도,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제도 등이 모두 그러한 방안의 일환이다. 그 중에서도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원래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주거공간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주거급여 제도는 최저주거비를 보장하지 못 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월세 임차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중소도시 전세 기준의 정액 급여로 운영되고 있어서 주택시장의 실제 임대료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둘째, 수급자 선정의 잣대가 되는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비현실적인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 주거 여건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에서 제외된 주거빈곤 가구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셋째, 주거급여가 생계급여에 포함돼 있어서 주거급여가 주거보장의 성격보다는 생활비의 일부로 쓰임으로써 소득보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가구 특성이나 지역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흔히 지적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 특히 주거급여 제도가 애초의 취지대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최저주거기준에 합당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과연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주거급여가 소득의 보조수단에 불과해서 주거보장 제도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지를 경험적 자료에 입각해서 엄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거안정과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주거급여 프로그램이 적절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에 근거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주거안정이란 개념은 주거급여 제도의 효과성을 판별하는 중심 개념이다. 유엔 하비타트(UN-Habitat) II 회의의 선언문과 의제에도 명시돼 있듯이, ‘주거안정’이란 ‘적절한 주거(decent shelter)에 살고 있음’을 의미하고, ‘적절한 주거’란 ‘단지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지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사생활 보호, 적절한 공간, 물리적 접근성, 적절한 안전성, 점유의 안정성 및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 적절한 조명·난방·환기, 불의 공급과 위생 및 쓰레기 처리 시설과 같은 적절한 기반시설, 바람직한 환경의 질과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 일자리와 기본적인 편의시설에서 멀지 않은 적절한 입지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의 주거가 주민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초과하지 않고 적절한 지출 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할 때 비로소 ‘적절한 주거’의 개념은 완성된다. 아마도 혹자는 매우 많은 조건과 단서를 달고 있는 이 같은 개념 정의가 무조건 저렴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현실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이라고 불평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

간 이상의 사회계층으로 올라가면 이러한 조건들은 주택을 선택할 때 너무도 당연하게 고려되고 충족되어야 할 최저한의 기준으로 인식된다. 주택 혹은 주거를 모든 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적 요소로 보기 보다는, 주택시장에서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해결하고 때에 따라서는 재산의 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을 당연시 하는 풍토 속에서, 어느새 최저 기준의 주거를 확보 하는가 못하는가의 문제를 개인의 능력에 좌우되는 불가피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 20년간 한국사회가 겪어온 경험에 비추어보면, 집 없는 서민들이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란 점점 어려워져왔고, 그들이 적절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부담의 정도는 자꾸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주거안정과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근본적 시각에서 주거급여 제도를 분석한 이번 연구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연구에는 지역에서 주거복지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세 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면접조사 등 심층적인 자료 수집에 열과 성을 다 했는데, 그들의 노고 또한 이 뜻 깊은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큰 몫을 했음을 밝혀둔다. 부디 이 보고서가 현행 주거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일보한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2005년 12월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 하성규

목 차

요약.....	15
제1장 주거급여 제도와 주거안정 개념과 최저 주거기준	
1. 주거급여제도	20
2. 주거안정 : 유엔 하비타트 II 선언문과 의제의 입장	20
3. 최저 주거기준과 주거복지정책	21
4. 주거급여 개선에 대한 기존 연구	22
5.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거복지제도의 개념	24
6. 연구의 가정과 가설 그리고 주요 변수	25
제2장 연구실행 과정	
1. Focus Group을 통해서 드러난 주민의 관심사	28
2. 표본추출 방법과 실행	32
제3장 대상가구의 생활조건에 대한 비교	
1. 연구대상 ‘지역’	36
2. 지역별 경제조건	37
3. 지역별 주거조건	42
4. 가족형태	44
5. 지역별 정부의 주거지원에 대한 인식과 정보 경로	48
6. 지역사회(동네)에 대한 인지	62
7. 소결론	63

제4장 대상가구의 생활조건	
1. 수입과 경제활동	64
2. 주거의 마련과 유지	67
3. 가족형태	70
4. 소결론	72
제5장 주거 및 동네에 대한 의견과 만족도	
1. 집과 동네에 대한 의견	73
2. 만족도에 대한 다중변수 회귀분석	75
3. 소결론	86
제6장 최저주거기준 달성과 미달	
1. 최저주거기준의 요소	87
2. 정부 주거지원이 최저주거기준 충족에 준 영향 측정	89
3. 최저주거기준 상태에 따른 주거지원의 인지도	90
제7장 결론	
1. 가설 검증	92
2. 연구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93
3. 연구의 한계성	94
참고문헌	95
부록 1. 연구를 수행한 시민사회단체 연구	96
부록 2. Focus Group 토의내용 녹취록	108
부록 3. 면접도구	124
부록 4. 최저주거기준	134
부록 5. 부록 표	135

표 목 차

<표 2-1> 주거와 동네의 요소별 중요성 점수	30
<표 2-2> 표본 추출과정의 요약	33
<표 3-1> 월수입	37
<표 3-2>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원을 받은 경험	38
<표 3-3> 가구내 경제활동 가구원 수	38
<표 3-4> 가구내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39
<표 3-5> 주거투입 비용	40
<표 3-6-1> 주거투입 비용 - 월세	41
<표 3-6-2> 지역별 RIR	41
<표 3-7> 전용면적	42
<표 3-8> 방의 수	43
<표 3-9> 부엌	43
<표 3-10> 화장실	44
<표 3-11> 가구원 수	45
<표 3-12> 1인당 주거면적	45
<표 3-13> 가족 구성형태	46
<표 3-14> 세대주의 성별	47
<표 3-15> 5개 지역별 세대주 연령.....	48
<표 3-16> 주거급여 인지 여부	49
<표 3-17> 주거급여 인지 경로	50
<표 3-18> 영구임대아파트 인지 여부	50
<표 3-19> 영구임대아파트 인지 경로	51
<표 3-20> 공공임대아파트 인지 여부	52

<표 3-21> 공공임대아파트 인지 경로	52
<표 3-22> 국민임대주택 인지 여부	53
<표 3-23> 국민임대주택 인지 경로	54
<표 3-24> 매입임대주택 인지 여부	54
<표 3-25> 매입임대주택 인지 경로	55
<표 3-26> 집수리 사업단 인지 여부	56
<표 3-27> 집수리 사업단 인지 경로	56
<표 3-28>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제도 인지 여부	57
<표 3-29>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제도 인지 경로	58
<표 3-30> 최저 주거기준 인지 여부	58
<표 3-31> 최저 주거기준 인지 경로	59
<표 3-32> 최저 생계비 인지 여부	60
<표 3-33> 최저 생계비 인지 경로	61
<표 3-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월세 지원 인지 여부	62
<표 3-35> 동네 주변환경을 잘 유지하거나 개선하기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62
<표 3-36> 이웃관계를 개선하기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63
<표 4-1-1> 정부주거지원 경험별 가구의 월평균 수입	64
<표 4-1-2> 정부 주거지원 경험가구수	65
<표 4-1-3> 수입 - 4분위 집단별 구성비	66
<표 4-1-4> 정부주거지원 경험별 가구원 수	66
<표 4-2-1> 현 거주 주택 점유 형태	67
<표 4-2-2> 주거 투입비용	68
<표 4-2-3> 주거투입비용 - 4분위 집단별 구성 비	69
<표 4-2-4> RIR	69
<표 4-3-1> 가족구성 형태	70
<표 4-3-2> 세대주의 성별	71
<표 4-3-3> 세대주의 연령별 빈도 분포	71

<표 5-1-1> 주거형태별 만족사유	73
<표 5-1-2> 주거형태별 불만족 사유	74
<표 5-2>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일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6
<표 5-3>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이사해야할 생각에 미치는 영향	77
<표 5-4>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건물하자에 대한 만족도 미치는 영향	79
<표 5-5>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습기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9
<표 5-6>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채광·통풍에 대한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80
<표 5-7>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1인 면적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80
<표 5-8>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방의 수에 대한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	81
<표 5-9>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상수도·하수도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83
<표 5-10>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공원·녹지·놀이터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83
<표 5-11>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도둑·비행청소년·치안 문제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84
<표 5-12>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자녀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84
<표 5-13>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주차문제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85

<표 5-14>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85
<표 6-1-1> 최저 주거기준 - 면적	88
<표 6-1-2> 최저 주거기준 - 방수	88
<표 6-1-3> 최저 주거기준 - 부엌	88
<표 6-1-4> 최저 주거기준 - 화장실	88
<표 6-2-1> 최저 주거기준 전체 건수	89
<표 6-2-2> 최저주거기준 전체 충족/미달	89
<표 6-3>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0
<표 6-4> 최저주거기준 상태별 대상자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비교	91

Abstract

A Survey for Evaluating the Adequacy of the Housing Allowance and Suggesting Improvements from the Viewpoint of Housing Stability

The authors use the expression 'housing stability' to mean the residents are satisfied with their housing and neighborhood, the housing is adequate by objective standards, and that therefore the housing conditions do not put pressure on the residents to move.

The survey is based on the basic question, "How much has the government's housing allowance helped its recipients to gain housing satisfaction or to obtain a house that meets the government's defined minimum housing standard?"

Thre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rovided the research assistants, and the survey targeted the residents of the districts where these organizations were active. The target areas were public rental housing units in Seoul and Incheon, and low-standard single- or multi-family dwellings in nearby districts. The researchers drew a stratified systematic random sample in such a way as to obtain a nearly equal number of respondent households receiving the housing allowance and those not receiving it, as well as nearly equal numbers of households in public rental housing and those in low-standard single- or multi-family dwellings. The researchers surveyed 288 households.

The researchers carried out multiple regression on the respondents' housing satisfaction, with the purpose of measuring the effect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at of receiving the housing allowance, while controlling for city of residence, floor space per person, amount the household invested in the dwelling, and the ratio of economically active members of the household. The data showed that living in public rental housing had a strong effect on increasing housing satisfaction, but that the housing allowance had almost negligible effect. The same multiple regression was carried out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se government programs on obtaining housing that meets the minimum standard. In general, the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 showed a strong negative effect, decreasing the percentage of households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and the housing allowance showed negligible effect. Although the public rental housing structurally meets the minimum standard, the rules of administration and limited availability sometimes force the residents into overcrowding.

The researchers also found that a very low percentage (8% - 46%) of the respondents were able to recognize the names of the various government programs of housing assistance other than public rental housing. Their recognition came mainly through TV. There was little contact with welfare professionals 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research suggests that the housing allowance lacks effectiveness because 1) much of it is dispensed to resid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who already have obtained the minimal standard of housing, 2) it is not allocated specifically to help achieve the minimal housing standard, and 3) households who need government support for housing do not know about the programs.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more effectively connect people who suffer sub-standard housing with the various government housing assistance programs. This implies that housing

welfare professionals, or even informed, concerned citizens, should be engaged more in programs that will increase their contact with the local residents who are in need of housing assistance.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주거급여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비뿐만아 주거안정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를 구별할 필요
- * 주거급여와 건물지원 등 여러 주거지원 대책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필요
- * 주거지원 정책을 최저주거기준과 주거안정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
- * 주거안정 개념을 더 충분하게 활용할 필요.
- * 주거안정 개념 ('적절한 주거')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가구와 받은 적이 없는 가구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주거급여의 효과를 추정하는 목적
- * 주거안정을 충족하는 데에 주민의 참여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정부의 주거지원대책에 대한 그들의 인지 정도를 알도록 함
- * 주거안정과 주거지원 대책에 대한 평가를 지역사회 발전의 요소로 만드는 목적

2. 연구방법

- * 주거안정과 주민의 참여를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 지역에 대한 연구
- * 주거안정에 대한 focus group 토론회를 통해서 면접도구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확인하고 주민 지도자의 관심사를 기록
- * 정부의 임대아파트 (공공, 또는 영구) 그리고 일반주택에 사는 가구를 서울과 인천에서 표본추출
- * 모집단은 서울과 인천 중에 세 개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영구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그리고 비슷한 사회계층이 살고 있는 일반 주택

- * 층화된 체계표본추출방법(stratified systematic random sampling)을 사용
- * 완료된 면접의 표본 수는 288사례

3. 주요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연구내용 포함)

가. Focus group 토론회

- * 아파트 및 일반주택에 사는 주부들의 주거에 대한 나눔
- * 서울과 인천에서 시민단체와 접촉이 많은 사람간의 대화
- * 서울에서 주거의 구조나 기능보다 이웃관계와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표현
- * 인천에서 이웃관계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 표현

나. 연구 대상 지역의 차이

- * 연구 대상 두 지역의 영구임대 아파트 간에 큰 차이
- * 서울 한 지역의 영구임대 주민의 수입과 월세와 경제활동율이 높고, 가족 형태에 부모자녀 가족이 많지만, 인천 한 지역의 영구임대 주민의 수입과 월세는 낮고 단독세대 노인이 많다.
- * 서울 대상 지역의 가구원수 인천보다 많다
- * 공공임대 주민들의 경제 수준은 대상 일반주택 주민과 비슷비슷

다. 정부의 주거지원 경험별 차이

- * 건물지원 (영구 또는 공공 임대), 주거급여, 주거지원 경험 없는 대상자를

비교

- * 수입과 주거에 대한 투입 (보증금 또는 자가 구입비용)에 있어 지원 없는 사람 > 건물지원 사람 > 주거급여 받은 사람
- * rent-income ratio (RIR): 건물지원 없는 수급권 경험자의 RIR는 부담이 크다

라. 주거지원 경험과 주거 만족도

- * 주거와 동네에 대한 만족도, 주거의 중요한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해석
- * 독립변수는 건물지원 받거나 받지 않은 것을 구별한 더미와 주거급여 경험 유무의 더미변수
- * 통제변수는 도시 (서울-인천 더미), 주거에 대한 투입 액, 주거의 1인당 면적, 가구의 경제활동 가구원수의 율
- * 정부 임대아파트에 사는 것은 다음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 건물 하자, 습기, 채광, 통풍, 주차(강한 영향), 방의 수 (약한 영향)
- * 주거급여 받은 경험이 만족도 높이는 효과는 ‘공원, 녹지, 놀이터’ 만족국한

마. 최저주거기준

- * 대상 가구 49.7% 최저주거기준 충족, 46.5% 최저주거기준 미달
- * 주거지원 경험별로 볼 때 건물지원 없이 주거급여 받은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충족률 39% 제일 낮다
- * 건물지원과 주거급여 둘 다 받은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충족률이 제일 높은 59%
- *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소는 밀도현상 (면적이거나 방의 수 기준 밀)
- * 선형회귀분석으로 최저주거기준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베타 값은 인천 +.30, 건물지원 -0.246 (밀도 현상 때문)

- * 이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주거지원이 주거만족을 높이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현상을 초래

바.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 * 대상자 50% 이상 들은 적이 있는 프로그램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최저생계비 뿐
- *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 지급과 함께 지급된다고 설명을 들은 대상자 중에 14%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
- * 최저주거기준을 들은 대상자는 8%, 집수리 사업단은 28%
- * 이 프로그램을 들은 통로는 압도적으로 TV
- * 동사무소, 복지관 등 전문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사. 지역사회에 대한 기대

- * 주변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대상자는 18%
- * 이웃관계가 좋다고 하는 대상자는 43%, 나쁘다고는 6.6%
- *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를 알고 있는 대상자는 12.5%
- * 시민단체와 접촉하는 focus group 참여자와 비교하면 대상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낮다

4. 활용성 및 기대효과

- * 연구 협조기관인 시민단체들이 주거복지를 돕는 그들의 활동계획에 적용
- *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특히 전문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을 통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다
- * 이 연구의 후속 과제는 주거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에 대한 연구
- * 주거급여 제도 개선에 최저주거기준과 연결시켜 주거안정을 높이는 행정 방법을 검토하는 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I. 주거급여제도와 주거안정 개념과 최저주거기준

1. 주거급여제도

우리나라의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한하여 지급된다. 수급권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지만, 수급권자가 이 급여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일부분으로 받는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지급은 수급권자의 주거안정 상태와의 관계는 간접적이다.

2. 주거안정: 유엔 하비타트 II 선언문과 의제의 입장

현 주거급여제도가 그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을 누리도록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주거급여제도의 명칭에 ‘주거’가 있지만, 혹시 별 다른 의미 없이 ‘생활비 중의 일부분일 뿐 아닌가?’ 하는 관심으로부터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거 급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거안정을 가장 중요시하며 주거안정은 건전한 사회의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주거안정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유엔 하비타트 II 회의 (Habitat II, 1996년 이스탄불의 유엔 인간정주회의)의 선언문과 의제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주거안정’이라는 개념은 ‘적절한 주거에 살고 있는 것’을 뜻한다. 유엔 하비타트 II 회의의 ‘이스탄불 선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것을 ‘전 세계적 목표’라고 했다.

하비타트 의제 제4 장에서 기록한 ‘적절한 주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절한 주거란 단지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지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주거란 적절한 사생활 보호, 적절한 공간, 물리적 접근성, 적절한 안전성, 점유 안정성,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 적절한 조명·난방·환기, 물 공급과 위생 및 쓰레기 처리 시설과 같은 적절한 기반시설, 바람직한 환경의 질과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 일자리와 기본적인 편의시설에서 멀지 않은 적절한 입지 등을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이 부담할 만한 적절한 지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도시연구소. 1997, p.81-2)

이 연구에서 대상자 주민들에게 이 정의의 각 요소에 관해서 물어 보았다.

3.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복지정책

최저주거기준을 공식적으로 설정하는 일은 이스탄불 하비타트 II 회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 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 회원 (70명 정도)들은 주거권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입법화시키는 운동에 힘썼다. 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운동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1999년에 주거권을 포함한 주택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주거권을 자세히 입법화하면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입법과정에서 ‘주거권’이란 표현은 상실되었지만, 건설교통부는 고시 제2000-260호로 ‘최저주거기준’을 고시했다. (부록 4 참조) 그리고 국회는 2003년 4월에 주택법을 개정하여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했다. 그 후에 건설교통부가 주거복지과를 설립했다.

건설교통부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하여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을 국정 회의

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건설교통부 2003년) 이 주거복지 지원 방안에 의하면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수를 계산한 결과,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23.1%에 해당되는 3,306,000 가구가 침실 수 미달 또는 전용부엌 및 화장실 미달 또는 중복 미달이었다.

제안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 소득계층별로 주거급여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환경 개선, 주택자금 융자 등 차등화 된 지원체계를 구축 ◇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표로 제도화하고 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었다. 주거 급여와 관련된 추진 방안 중에 저소득 가구의 주거 실태·최저 주거비 조사를 실시하고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의 주거 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같은 국정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에 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해서 ‘사회적 고립 방지정책(social mix)’을 구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방안에는 주거급여가 포함될 것이 추측된다. 건물지원만 있다면 소득이 낮은 계층만 입주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소득이 서로 다른 ‘사회적 고립 방지정책(social mix)’ 입주는 주거 급여나 낮은 이자의 주거비용 융자를 반드시 요구한다. 2006년도에 차상위 계층에게까지 주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다.

연구자들은 여러 계층들이 임대아파트에 함께 살고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준비하는 한 부분의 실태 조사를 계획했다.

4. 주거급여 개선에 대한 기존 연구

가. 2002년 대한주택공사 연구

「주거복지백서」에서 주택공사는 주거복지정책의 수단을 “대물보조와 대인보조”로 구분한다. “대물보조” 정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과 이를 위한 택지지원 등이 있고, “대인보조” 정책으로는 주거급여와 임

대료규제, 임대료 용자제도 등이 있다. (대한주택공사 2002: 6)

따라서 이 연구에서 「주거급여」를 현대 제도에 한해서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정책의 수단으로써의 “대인보조”로써 더 폭넓은 개념화로 연구한다.

이 주거복지백서에서는 “현재의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강하고 실질적인 주거비보조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즉, 주거급여제도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대한주택공사 2002:18-19)고 결론을 냈다. 이 백서는 주거급여제도가 최저주거기준과 관계없이 실행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주거급여제도는 적절한 수준의 주택제고확보와 연계되고 주거비 지원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는 백서는 현재 주거급여제도가 생활보장대상가구(모든 가구 중에 약 5%) 한해서 급여하는 것은 최저주거기준을 못 미쳐서 사는 가구(모든 가구 중에 20%)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너무 한정된 제도라고 지적한다. 요약하면 이 백서가 제안하는 제도개선은 급여 대상자 늘림과 급여액의 현실화는 보통의 복지실태조사 방법으로 조사하면 되겠지만, 포괄적 주거복지정책과 연결하는 연구는 새로운 개념을 요구한다.

나. 주거급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2002년도의 주거복지백서와 위에서 언급한 2003년도의 국정과제회의 자료는 두 가지 모두 주거급여제도 개선을 2005년 9월까지 하는 것이었지만,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9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거급여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그 발제문에서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 최저주거보장 : 주거급여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계층에 대한 최저 주거 보장

- ◇ 형평성 제고 : 계층별 (수급자와 비수급자),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점유형태별 (자가, 전세, 월세), 가구 규모별 (가구원 수의 차이) 형평성 제고
- ◇ 예산의 효율적 활용 : 급여의 중복을 피하고 누락을 방지하여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계층 포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19)

그 후에 정부가 차상위계층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권자와 비수급권자를 비교함으로써 그 제도가 “최저주거보장”이란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그 형평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거복지제도의 개념

가. 유엔 하비타트 II 의제에서 표현한 주민의 참여

하비타트 II 의제에서 주택전달체계의 실천전략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지적한다.

- a) 시장이 작동할 수 있게 한다. b) 지역사회에 기반 한 주택생산을 촉진한다.
- c) 토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d) 금융자원을 동원한다. e) 기본적인 기반시설과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한다. f) 계획 · 설계 · 건축 · 관리 · 복원과정을 개선한다. (한국도시연구소, 1997: 89-104)

각 과제의 실천 전략마다 주민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주택시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택시장과 다른 전달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 · 평가 · 보급한다.”고 한다. 또한 취약집단의 특수한 요구를 고려하여 임대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유연한 수단을 적절히 개발한다. 지역사회에 기반 한 주택 생산을 촉진하는 실천전략은 “지역주민 조직과 비정부 조직이 자조적인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금융 자원을 동원하는 실천전략은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주택 저당대출을 장려하고, 그들이 자본, 자원, 신용, 토지, 기술, 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하여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과정에서 지위 향상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실천전략들은 모두 “권한 확대”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하버타트 II 의제는 권한 확대 정책을 제 4장 D절 “능력 개발과 제도적 발전”에서 밝히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 1997:166-181)

나.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 계획

이 연구에 협조하는 시민단체들은 주민 조직지원을 그들의 제일 중요한 과제로 선택했다. 그렇지만 “주거복지”를 활동 방향으로 선택한 것은 최근 일이기 때문에 이 활동에 대한 평가 연구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활동에 필요한 기초 정보만 기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대상 주민들의 주거와 동네에 대한 관심사와 만족의 정도,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했다. 또한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필수조건인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정보의 경로’를 조사했다.

6. 연구의 가정과 가설 그리고 주요 변수

가. 가정

1) 모든 국민들에게 적절한 주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주택 정책의 방향에 많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

- 2) ‘적절한 주거’는 건전한 지역 사회에 달려있다.
- 3) 권한 확대(empowerment) 실천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 4)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정책에 대한 홍보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나. 가설

- 1) 주거급여 지급을 받는 것과 받지 않은 것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킨 상태와 관계가 없다.
- 2) 대상 모집단 주민들은 주거급여나 다른 주거복지 정부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다.
- 3)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언론을 통해서 약간 생겼지만 전문 지식을 가지는 사람과 접촉이 거의 없다.
- 4) 대상 주민들은 집의 면적과 기능뿐만 아니라 이웃, 주변 환경, 도시 서비스 등을 중요시한다.

다. 주요 변수와 지수

- 1) 정부의 주거지원(또는 주거복지 보조)은 대물보조(영구임대, 공공임대)와 대인 보조(주거급여 혹은 대출금 융자)인데 우리의 대상자 중에 9가구만 대출금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의 주거지원 경험”변수를

1. 대물보조 + 주거급여 받은 적이 있는 가구
2. 대물보조만 받는 가구
3. 주거급여만 받은 적이 있는 가구
4. 주거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가구로 범주화 했다.

- 2) 최저주거기준 충족과 미달. 건교부의 고시내용에 따라

- ◇ 방의 수 : 그 기준과 대상 가구의 방의 수와 가구원 수를 비교해서 기준 미달을 구분 ; 만5세 초과 자녀는 부부와 침실 분리의 기준 미달을 구분 ; 만8세 이상 남녀자녀는 침실분리 기준 미달을 구분 ; 부부나 미혼자녀 중에서 집이 좁아서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도 기준 미달 구분
- ◇ 면적 : 사는 집의 전용 면적이 고시의 기준 미달을 구분
- ◇ 부엌이나 화장실이 전용되지 못한 경우는 기준 미달을 구분

3) 집과 동네에 대한 만족도

- ◇ 일반 만족 : “집과 동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아주 불만 2. 불만 3. 그저 그렇다 4. 만족 5. 아주 만족의 기록을 이용해서 만점이 5점, 평균이 3.0점 척도를 만들었다.
- ◇ 집과 동네의 구성 요소에 대한 만족도 : 유엔의 “적절한 주거”의 21개의 요소를 두고 일반 만족과 같은 척도를 만들었다.

4)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와 정보의 매체

아홉 가지 프로그램이나 개념 (주거급여, 영구 임대아파트, 국민 임대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자활 후견기관의 집수리 사업단, 은행 전세자금지원 대출제도, 최저주거기준,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 들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 무엇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기록했다. 대상자의 “동사무소”, “복지관”과 같은 대답의 율은 “전문지식을 가지는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지수로 여겼다.

5)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인지의 구성 요소는 “주변 환경을 잘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인지 : “지역의 이웃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인지 : 이웃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 일을 하는 단체를 알고 있는지 등이었다.

II. 연구실행과정

1. Focus group을 통해서 드러난 주민의 관심사

가. Focus group 실시

서울지역은 독립문 평화의 집과 관계있는 A동의 30대~50대 주부 4명, 성동 평화의 집과 관계있는 B동의 30대~50대 주부 4명, 그리고 진행팀 5명(서기1명)과 간담회를 가졌고, 인천지역은 C동의 30대~50대 주부 11명,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주부 3명과 진행팀 5명(서기1명)이 간담회를 가졌다.

진행자가 첫 번째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동네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는 좋은 집 혹은 동네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나. 그룹토의에서 드러난 관심사와 표현 - “주거안정의 문화”

1) 분위기

서울의 A동과 B동은 4명씩 처음 만나는 관계라 서로 서먹한 것이 있어 초반에 이야기가 잘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인천C동은 어린이 집의 학부모들이 다수 참여한 관계로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서울에 비해 즉흥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며, 이웃과 외부환경이 두 지역 모두의 관심사로 언급되었다.

2) 서울지역

서울은 이웃 · 좋은 이웃 · 공동체의식 · 눈치안보고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등 이웃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말이 제일 많았다. 두 번째로 풀밭·나무·녹지공간·초원·감나무·대추나무 등 상쾌한 환경과 관련된 것, 세 번째는 문화시설·공부방·회의할 공간 등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표현, 마지막으로 교통과 관련된 것으로 계단보다는 횡단보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좋은 집’이라는 것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같은 농촌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인천지역

인천은 이웃, 아이를 키우는 것, 위험성·안전 등 3가지 주제가 계속 언급이 되었다. 이웃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저분한 것·시끄러운 것·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조심성이 없는 것·외국인노동자·자기 위주로 사는 것·이웃관계가 좋은 것·서로 양보하는 것·좋은 관계·좋은 동네 등이 있었고,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놀 공간·마당·울타리 안의 학교·집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공부방·어린이집·공부할 곳·영어공부·혼자 사는 남자가 많아 아이 키우는데 좋지 않은 것·엘리베이터가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내용이 주로 이야기되었다. 그리고 위험성·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저분한 것들로 불이 날 위험·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골목·가스레인지·아이들이 길에서 노는 것·남자(노동자)만 사는 집이 많아 아이를 키우는데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진행자가 이웃과 환경을 제외한 집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고 했지만 이웃관계가 다시 화제가 되었고, 제일 살기 좋은 집과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몇 분만 그들의 이상을 말했을 뿐,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가 이어졌다.

인천의 Focus group은 C동 어린이 집의 학부모가 대다수 참여한 관계로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 중 한 학부모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입견을 반복하여 이야기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그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것 같았으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은 자제하는 것 같아 보였다.

다. 그룹토의에서 나타난 선호하는 주거환경(주택)

서울과 인천 두 그룹 모두에게 선호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건물 하자여부, 건물내부(습기, 채광, 통풍), 집의 면적, 방의 개수, 상하수도 시설, 부엌, 화장실, 목욕탕, 난방시설, 주변상가위치(시장, 상가), 의료시설(보건소, 병원), 녹지공간(공원이나 놀이터 유무), 주변환경(소음, 악취, 쓰레기 방치 등), 치안문제, 사생활 보호, 자녀교육 환경(학교, 학원 유무), 주거안정(전세, 월세 등), 주차문제, 교통이 좋은지, 직장과 가까운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인지, 동네 느낌(이웃에 대한 생각), 옆집에 누가 사는지 등 총 23개의 카드를 각각 나누어 주고 상·중·하로 구분되어 있는 세 상자에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도 순으로 카드를 넣도록 하였다.

두 지역의 선호하는 주거환경은 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상하수도 시설·치안문제·사생활 보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건물내부(습기, 채광, 통풍)·의료시설(보건소, 병원)·주변환경(소음, 악취, 쓰레기 방치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녹지공간, 주거안정(전, 월세 등), 교통이 좋은지, 동네에 대한 느낌(이웃에 대한 생각) 등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표 2-1> 주거와 동네의 요소별 중요성 점수

내 용	상(2점)	중(1점)	하(0점)	종합지수(점수합계)
건물하자여부	8	6	4	22
건물내부	9	8	1	26
집의 면적	8	6	4	24
방의 개수	3	8	7	14
상하수도 시설	12	3	3	27
부엌	7	6	5	20
화장실	6	5	7	17

<표 계속>

목욕탕	2	6	10	10
난방시설	8	6	4	22
주변상가위치	6	9	3	21
의료시설	10	6	1	26
녹지공간	11	3	4	25
주변환경	11	4	3	26
치안문제	13	1	4	27
사생활 보호	12	3	3	27
자녀교육환경	9	6	3	24
주거안정	10	5	3	25
주차문제	7	8	3	22
교통이 좋은지	8	9	2	25
직장이 가까운지	3	12	3	18
구직활동이 쉬운지	7	4	7	18
동네 느낌	8	8	2	24
옆집에 누가 사는지	3	12	3	18

라. 부분 결론

주민들의 ‘주거 안정’문화에는 이웃관계, 치안, 상쾌한 환경 같은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것은 면적, 방의 수, 시설 중심의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이 모두 달성된다 하더라도 집과 동네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표본추출 방법과 실행.

이 연구의 대상 지역은 연구의 실행을 맡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의 의도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 엄격한 무작위 방법을 사용했다. 표본의 성격은 생활보장지급 수급권자와 비 수급권자 두 집단을 무작위한 방법으로 추출한 표본이다. 그 실행단계는 1) 매핑 2) 매핑과정을 거쳐서 대상으로 작성한 집의 ‘명단’에서 첫 번째 표본추출 3) 실태조사 첫 번째 단계 4) 첫 단계 면접을 통해서 알아 낸 수급권자의 수를 생각해서 수급권자의 명단에서 무작위하게 두 번째 표본을 추출했다.

가. 매핑

이 연구의 ‘모집단’은 3개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있는 연구임대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와 최저주거기준이 미달 상태의 확률이 높은 일반 주택에 사는 세대이었다. 이 모집단의 대상 주거의 주소록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먼저 대상지역의 영구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지하실이나 옥탑, 낙후 지역의 집 등을 직접 보고 지도를 그렸다. 한 세대가 살만한 공간마다 일련번호를 정했다. 매핑의 결과로 10개 지역에서 6128개의 주거가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이 되었다.

나. 표본추출

이 연구의 허락된 예산과 인력에 따라 320세대의 표본 크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즉, 서울 160 사례, 인천 160 사례, 전체 320 사례로서 주거급여 받은 세대 약 160 사례, 받은 적이 없는 세대 약 160 사례의 구성, 그리고 공공 또는 영구임대 아파트 약 160세대, 일반 주택 약 160세대의 구성이 이상적이었다. 그

렇지만, 서울의 경우 수급자 명단이 부족해서 대상자와 만나서 면접하기 전에 생활보장지급과 주거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표본추출을 두 단계로 나누었다.

인천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구임대 아파트 수급자, 일반주택 수급자, 일반주택 비수급자 세 가지 층을 구분해서 층화 체계표본추출방법을 사용했다. 160 사례를 충분히 완성할 수 있도록 214 주거를 추출했다.

서울의 경우 수급권자의 명단이 부분적이었기 때문에 첫째 단계에 144 집만 추출했고, 나머지 집을 수급자 명단에서 필요한 만큼 제2 단계에서 추출했다. 첫 단계에 영구임대, 공공임대, 일반주택 세 가지 층을 구분해서 층화 체계표본추출방법을 사용했다. 이 결과 영구임대 아파트 30명의 수급자 외에 수급자 6명밖에 없었다. 이 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수급자 명단에서 공공임대와 일반주택 두 층을 구분해서 층화 체계표본추출방법으로 36 주거를 더 추출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표본추출 과정이 <표 2-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2> 표본추출 과정의 요약

구분한 층	모집단 (매평의 주거 수)	추출한 주거의 수	완성된 면접의 수
인천영구임대 수급자	1099	54	40
인천일반주택 수급자	219	60	45
인천일반주택비수급자	302	100	75
서울영구임대 아파트	970	40	38
서울공공임대 아파트	2750	60	36
서울일반주택	618	44	33
서울 수급자	170	36	21
총계	6128	394	288

* 서울 수급자 명단에 공공임대아파트 주민과 일반주택 주민이 포함된다.

다. 실행

본 연구의 주요한 자료 취합 수단인 면접조사는 총 5명의 조사원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인천지역에서 2명이 수고하였으며, 서울에서 3명의 조사원이 수고하였다. 특히 본 연구 조사과정이 2005년도 전국 인구주택 총 조사 기간과 일치하여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조사원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조사 대상 가구 주민을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은 기대와 다르게 너무나 힘들게 진행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주민을 만나서 진행하여야 하는 방문 설문조사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여 목표 사례를 초과하여 방문 가구 수를 선정하였기에, 3회 이상 방문하여도 만날 수 없었던 가구는 더 이상의 방문을 자제하고 다음 대상 가구를 찾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임대아파트 주민과 일반 주택 주민들 중 대다수는 주간 중에 방문하면 대부분 만날 수가 없었으며, 설혹 집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 잡상인 취급을 당하며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직접 단지에 거주하시는 주민 분을 통해 방문조사를 담당토록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파트 부녀회를 사전에 파악하여, 부녀회 임원을 통해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아파트 조사 대상 가구 방문시 동행토록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하기도 하였다. 어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조사원이 설문도구의 내용대로 질문할 경우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또는 의례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여겨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한 사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재차 방문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확인방문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자존심이 작용하여 거짓으로 대답한 경우도 확인하였지만, 서류상 계약자 이외의 사람이 살고 있기에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답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조사원은 이런 경우 연구의 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하였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애초의 취지가 현실에서 많이 왜곡되어 감을 느낄 수 있

는 계기도 되었다. 또한 인천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는 방문 대상 가구 중 많은 사례가 장년 이상 노년층으로 가구가 구성되어 있어서 본인들의 생활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지 또는 불편을 느낄 필요조차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 크게 불편을 느낀다거나 혹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라는 형태의 답은 거의 하지 않았다. 또한 가구별 월별 지출, 부채상태 및 저축 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때 개인 사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대다수 분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기에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한 내용이었고 또한 본 연구의 해석과정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기에 배경정보로만 활용하였고 분석과정에는 제외하였다.

Ⅲ. 대상지역에 대한 비교

1. 연구 대상 지역

이 연구의 대상 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거권 운동에 참여하는 3개의 시민 단체들의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영구 임대아파트, 공공 임대아파트,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가 될 수 있는 일반주택(달동네, 현지개발 재개발 혹은 다세대주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이 되는 가구는 서울과 인천의 여러 행정구역에 흩어져 있었고 ‘생활의 조건 즉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서민의 일반주택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또는 비수급가구-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표본추출을 통해서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차이는 수급가구와 비수급 가구의 차이뿐이다. 이것은 제 4장에서 한다. 제 3장에 생활조건별로 대상가구를 비교하지만, 제 5장에서 다중변수분석방법을 통해서 이 생활조건의 순수한 영향을 측정해 본다. 여러 생활조건을 편리하게 ‘지역’으로 표현하며 인천영구임대단지를 “인천 영구 임대아파트”로 하고, 인천에 있는 3개의 동에 위치한 “낙후 주택지역”들을 합쳐서 “인천 일반주택”으로 한다. 서울에 있는 한 영구임대단지를 “서울 영구임대아파트”로 하며, 서울에 있는 4개의 공공임대 단지를 “서울 공공임대아파트”로 한다. 서울에 있는 3개의 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지역이나 낙후된 주택지역을 “서울 일반주택”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와 “인천 일반주택”, “서울 영구임대아파트”와 “서울공공임대아파트”, 그리고 “서울 일반주택”의 다섯 지역을 비교 할 수 있다. 이 다섯 지역을 비교한 다음에 서울과 인천을 합쳐서 주거 종류별로 비교했다. (즉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를 엮고,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의 일반주택을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였다.)

2. 지역별 경제조건

가. 수입, 가구의 경제활동 가구원 수,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수입 :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영구임대아파트였다. 그렇지만 이 지역 주민의 수입 중위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중위수보다 낮다. 상당히 큰 표준 편차가 보여주듯이 높은 평균은 소수의 특별히 높은 수입 때문이다. 서울 지역은 대체적으로 평균수입이 11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로 비슷하였지만, 인천 영구임대아파트는 평균수입이 48만원으로 현저히 낮았다(층화체계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는 과정에 인천영구임대아파트에서 수급자만 추출했다). 인천 주택은 서울 주택과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인천 영구임대아파트는 동일한 인천 주택의 평균 수입 98만원과 비교하여도 매우 큰 차이가 난다.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평균 수입은 48만원으로, 특히 서울 영구임대아파트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인천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자는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이지만 서울영구임대아파트 대상자중에 일부의 수입이 높기 때문이다(그 수입의 중위수는 100이지만 그 평균은 높은 130만원이다). 또한 서울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자들 중에는 55%만 수급권자이다.(<표 3-2참조)

<표 3-1> 월수입

		사례수	월 가구 수입(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전체		(288)	98.4	89.3	80.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111.9	52.3	110.0
	서울 영구	(38)	130.3	171.7	100.0
	서울 기타	(41)	112.9	84.5	90.0
	인천 영구	(40)	48.6	35.1	44.5
	인천 기타	(120)	98.3	73.4	80.0

〈표 3-2〉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원을 받은 경험

		사례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여부		
			받고있다	과거에받았다	없다
			%	%	%
전체		(288)	41.7	7.3	51.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28.6	6.1	65.3
	서울 영구	(38)	55.3	23.7	21.1
	서울 기타	(41)	14.6	7.3	78.0
	인천 영구	(40)	100.0		
	인천 기타	(120)	32.5	5.0	62.5

경제활동 가구원수 : 서울 지역의 경제활동 가구원수는 1명인 경우가 50% 정도이다. 인천 주택의 경우에도 경제활동 가구원수는 혼자인 경우가 53%정도다. 하지만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경제활동 가구원 수가 없는 경우가 85%나 된다. 그것은 인천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자가 대부분 수급권자로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이것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표 3-3〉 가구 내 경제활동 가구원 수

		사례수	경제활동 가구원 수(명)				
			0	1	2	3	4
			%	%	%	%	%
전체		(286)	32.20	47.90	17.10	1.70	1.0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8)	16.70	58.30	20.80	2.10	2.10
	서울 영구	(38)	21.10	44.70	26.30	7.90	
	서울 기타	(41)	29.30	58.50	12.20		
	인천 영구	(40)	85.00	10.00	5.00		
	인천 기타	(119)	25.20	53.80	18.50	0.80	1.70

경제활동 비율 : 가구원 수는 평균 2.6명으로 약 3명 정도이고 서울지역과 인천 주택지역은 평균 1명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인천 영구 임대아파트는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0.2명으로 대부분이 수급권자임을 반영해 보이고 있다.

〈표3-4〉 가구 내 경제활동 가구원 비율

	사례수	가구원 수	경제활동	경제활동비율	
		(명)	가구원수(명)		
		평균	평균	평균	
전체		(288)	2.6	0.9	36.8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3	1.1	41.2
	서울 영구	(38)	3	1.2	39.6
	서울 기타	(41)	3	0.8	25.3
	인천 영구	(40)	2	0.2	7.9
	인천 기타	(120)	2.4	1	47.9

나. 주거투입 비용과 월세와 Rent Income Ratio(RIR)

1) 주거 투입비용 : 주거 투입비용(자기 집 가격,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은 서울 공공임대아파트가 평균2047만원으로 가장 높다. 반면 서울 영구임대아파트는 평균 359만원으로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평균 236만원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투입 비용은 서울 지역과 인천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공공임대아파트나 주택의 주거투입비용보다 훨씬 낮음을 살펴볼 수 있다.

2) 월세 : 주거 투입비용에서 월세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월세비용이 가장 낮은 점 역시 차이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서울 영구 임대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2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그 중위수는 서

을 공공임대아파트보다 낮았다. 높은 평균은 소수 경우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특별한 계약으로 예외로 내는 월세로 추측된다. 전체 월세의 평균은 13만원 정도지만,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월세는 3.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표 3-6-1>참조)

<표3-5> 주거 투입 비용

		사례수	주거투입비용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전체		(288)	1227.3	1313.6	700.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2047.9	1093.0	2000.0
	서울 영구	(38)	359.8	513.2	200.0
	서울 기타	(41)	1850.0	1774.3	1000.0
	인천 영구	(40)	236.4	299.5	190.0
	인천 기타	(120)	1364.9	1256.8	1000.0

3) Rent Income Ratio(RIR) : 주민들의 월세 부담을 추정하기 위해서 월세와 전세를 내는 경우에 한해서 RIR을 계산했다. 신뢰도가 높은 중위수를 사용했는데 그 양식은, $RIR=(W+B*.05/12)/S$

W = 월세의 중위수

B = 보증금의 중위수

S = 월 수입의 중위수

그 결과 서울과 인천의 영구임대아파트의 월세 부담이 적고(약 0.11) 나머지 지역의 월세 부담이 거의 두배 더 높다.(약 0.20)

〈표3-6-1〉 주거 투입 비용 - 월세

		사례수	월세(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전체		(162)	13.2	11.9	10.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26)	11.6	8.3	12.3
	서울 영구	(27)	22.1	19.7	10.0
	서울 기타	(25)	16.7	8.4	14.0
	인천 영구	(39)	3.7	.8	4.0
	인천 기타	(45)	15.1	8.1	12.0

〈표3-6-2〉 지역별 RIR

		사례수	월세(만원)	주거투입 비용	월 가구 수입(만원)	RIR
			중위수	중위수	중위수	
전체		(241)	10.00	700.000	80.00	.16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1)	12.25	2000.000	110.00	.19
	서울 영구	(33)	10.00	200.000	100.00	.11
	서울 기타	(33)	14.00	1000.000	90.00	.20
	인천 영구	(39)	4.00	190.000	44.50	.11
	인천 기타	(95)	12.00	1000.000	80.00	.20

3. 지역별 주거 조건

가. 면적, 방의 수

전용면적 : 전용면적은 평균 11.6평으로 대체적으로 모든 조사 지역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용면적에 있어서도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평수가 7.8평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과 인천의 주택지역의 경우 표준편차가 크다. 평균이 중위수보다 높은 것은 소수 주택의 넓은 면적 때문이다.

〈표3-7〉 전용 면적

		사례수	전용 면적(평)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전체		(288)	11.6	5.4	11.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14.4	1.0	14.5
	서울 영구	(38)	12.9	2.9	12.9
	서울 기타	(41)	11.9	8.1	9.5
	인천 영구	(40)	7.8	.5	8.0
	인천 기타	(120)	11.1	6.1	10.0

방의 수 : 평균적으로 침실과 거실을 포함한 방의 수는 3개로 분석된다. 서울 공공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는 거의 3개의 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 주택지역과 인천 주택지역의 경우 방의 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두 주택지역은 3개의 방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방의 수는 많은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3-8〉 방의 수

		사례수	방의 수				
			1	2	3	4	5
			%	%	%	%	%
전체		(261)	5.40	7.30	74.70	12.30	0.4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98.00	2.00	
	서울 영구	(38)			100.00		
	서울 기타	(40)	10.00	12.50	60.00	15.00	2.50
	인천 영구	(39)		5.10	94.90		
	인천 기타	(95)	10.50	12.60	50.50	26.30	

나. 부엌, 화장실

부엌 : 부엌은 조사 결과 대부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지역만 부엌의 단독 사용이 87.8%로 가장 낮았지만 다른 지역은 대부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9〉 부엌

		사례수	부엌 사용		
			단독사용	공동사용	없음
			%	%	%
전체		(287)	97.90	1.40	0.7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100.00		
	서울 영구	(38)	100.00		
	서울 기타	(41)	87.80	7.30	4.90
	인천 영구	(40)	100.00		
	인천 기타	(119)	99.20	0.80	

화장실 : 화장실은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의 아파트 대부분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 주택지역과 인천 주택지역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아파트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은 주택과 아파트 간 화장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3-10〉 화장실

		사례수	화장실 사용	
			단독사용	공동사용
			%	%
전체		(288)	84.70	15.3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100.00	
	서울 영구	(38)	100.00	
	서울 기타	(41)	85.40	14.60
	인천 영구	(40)	97.50	2.50
	인천 기타	(120)	69.20	30.80

4. 가족 형태

가. 가구원 수

가구원 수 : 가구원 수를 살펴보았을 때, 서울지역은 2명에서 4명의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인천지역은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인천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2명이 생활 하는 경우가 42.5%로 매우 높았다.

〈표3-11〉 가구원 수

		사례수	가구원 수(명)					
			1	2	3	4	5	6
			%	%	%	%	%	%
전체		(288)	24.30	24.70	23.60	22.90	3.10	1.4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8.20	22.40	36.70	26.50	6.10	
	서울 영구	(38)	7.90	28.90	23.70	34.20	5.30	
	서울 기타	(41)	9.80	14.60	46.30	24.40	2.40	2.40
	인천 영구	(40)	35.00	42.50	15.00	7.50		
	인천 기타	(120)	37.50	21.70	13.30	22.50	2.50	2.50

나. 1인당 주거 면적

1인당 주거 면적은 평균 5.4평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인천 주택지역이 평균 5.9평으로 1인당 가장 넓은 주거 면적을 갖고 있었다. 1인당 주거 면적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주택지역으로 평균 4.4평 정도였다.

〈표3-12〉 1인당 주거 면적

		사례수	1인당 주거 면적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전체		(288)	5.4	3.5	4.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5.7	3.1	4.8
	서울 영구	(38)	5.0	2.5	4.4
	서울 기타	(41)	4.4	3.5	3.0
	인천 영구	(40)	4.9	2.2	4.0
	인천 기타	(120)	5.9	4.2	4.2

다. 가족 구성 형태

가족 구성 형태 : 가족 구성 형태에서 서울 지역과 인천 지역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지역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44%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인천 지역은 단독 세대인 가구가 35% 이상으로 단독 세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 지역은 서울지역에 비해 단독 세대이거나 부부세대인 경우가 높은 점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서울 지역은 대체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인천지역과 다른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표3-13〉 가족 구성 형태

	사 례 수	가구 유형								
		단독 세대	부부 세대	부모+ 자녀	편부모 +자녀	조부모 +부모+ 자녀	조손 세대	친인척 +부부+ 자녀	기타	
		%	%	%	%	%	%	%	%	
전체	(288)	24.70	9.40	33.00	19.10	3.80	3.10	1.00	5.9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10.20	10.20	44.90	18.40	4.10	4.10	2.00	6.10
	서울 영구	(38)	7.90	13.20	44.70	21.10	2.60	2.60	2.60	5.30
	서울 기타	(41)	9.80	2.40	48.80	22.00	2.40	4.90		9.80
	인천 영구	(40)	35.00	20.00	15.00	12.50	5.00			12.50
	인천 기타	(120)	37.50	6.70	25.00	20.00	4.20	3.30	0.80	2.50

라. 여성 세대주, 세대주 성별

세대주의 성별 : 세대주는 남성이 평균 60%로 전체적으로 남성이 세대주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서울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남성이 세대주인 경우가 69%로 매우 높았다. 이에 반해 인천 지역의 경우 남성과 여성세대주가 거의 동등하게 나타났다.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와 인천 주택지역은 남성이 세대주인 경우가 55%이고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가 45% 정도로 여성 세대주가 많은 것은 인

천 지역들의 특성이다. 이것은 인천지역의 월 평균 수입이 서울보다 작은 것의 원인이라고 추측된다.

〈표3-14〉 세대주의 성별

		사례수	세대주 성별	
			남	여
			%	%
전체		(288)	60.10	39.9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69.40	30.60
	서울 영구	(38)	65.80	34.20
	서울 기타	(41)	61.00	39.00
	인천 영구	(40)	55.00	45.00
	인천 기타	(120)	55.80	44.20

마. 세대주의 연령

세대주의 연령 : 세대주의 연령은 매우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30대에서 40대의 세대주가 39%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 주택의 경우 30대 ~ 40대의 세대주가 5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서울 주택과 인천 주택의 경우 30대 ~ 40대가 세대주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울 영구임대아파트와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세대주는 60대가 3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점이 가장 주목된다. 이것은 주택의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낮은 경향을 보이며,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연령이 높은 세대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주택과 영구임대아파트의 세대주는 연령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15〉 5개 지역별 세대주 연령(20대, 30-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사례수	연령				
			20대 이하	30대~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	%	%	%	%
전체		(288)	1.7	39.2	18.8	21.9	18.4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44.9	20.4	20.4	14.3
	서울 영구	(38)		28.9	23.7	34.2	13.2
	서울 기타	(41)		53.7	14.6	12.2	19.5
	인천 영구	(40)		22.5	12.5	35.0	30.0
	인천 기타	(120)	4.2	40.8	20.0	17.5	17.5

5. 지역별 정부의 주거 지원에 대한 인식과 정보 경로

가. 주거급여의 인지 여부와 인지 경로

1) 주거 급여의 인지 여부 : 주민들에게 인터뷰를 통해 주거 급여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거 급여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평균 93%로 조사되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주거 급여가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주거 급여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인터뷰 대상자인 주민들은 주거 급여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경우 주거급여를 들어본 적이 있는 주민들이 최소 5.4%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천 영구임대아파트는 전혀 없었고, 인천 주택지역의 경우 인터뷰 대상 주민들 중 5.8%만이 주거 급여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의 인지 여부에서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은 인천지역보다 주거급여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차이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급여”라는 용어만 모르고, 그 지급에 대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조사 마지막 단계로 제도를 설명한 다음 재차 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더니 알고 있는 대상자는 14% 되었다. (<표3-34> 참조)

<표3-16> 주거급여 인지여부

		사례수	주거급여 인지 여부	
			있다	없다
			%	%
전체		(287)	7.00	93.0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14.30	85.70
	서울 영구	(37)	5.40	94.60
	서울 기타	(41)	9.80	90.20
	인천 영구	(40)		100.00
	인천 기타	(120)	5.80	94.20

2) 주거 급여의 인지 경로 : 주거 급여의 인지 경로는 사례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 공공임대아파트와 서울 주택, 그리고 인천주택에서만 인지 경로를 알 수 있었다. 주거 급여를 알고 있는 서울 공공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은 TV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서울 주택지역의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주거 급여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인천 주택의 경우에도 동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17〉 주거급여 인지경로

		사례수	주거급여 인지 경로				
			동사무소	TV	이웃	통반장	신문
			%	%	%	%	%
전체		16	43.80	37.50	6.30	6.30	6.3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5	20.00	60.00	20.00		
	서울 기타	4	75.00	25.00			
	인천 기타	7	42.90	28.60		14.30	14.30

나. 영구임대아파트의 인지여부와 인지 경로

1) 영구 임대아파트의 인지 여부 : 영구임대아파트의 인지 여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보다 전체적으로 높았다. 이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영구임대 아파트의 개념이나 존재에 대하여 더욱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과 인천지역 아파트는 영구 임대아파트의 인지율이 91% 이상이었다. 서울주택과 인천주택의 경우 영구 임대아파트의 인지율은 아파트 보다 낮은 81~85% 정도였다.

〈표3-18〉 영구임대아파트 인지여부

		사례수	영구임대아파트 인지 여부	
			있다	없다
			%	%
전체		(288)	87.50	12.5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91.80	8.20
	서울 영구	(38)	92.10	7.90
	서울 기타	(41)	85.40	14.60
	인천 영구	(40)	97.50	2.50
	인천 기타	(120)	81.70	18.30

2) 영구 임대아파트의 인지 경로 : 영구임대아파트의 인지 경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TV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사무소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 비율은 17%정도였다. 영구 임대아파트의 인지 경로 중 특이한 부분은 서울 영구임대아파트와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동사무소를 통하여 알게 된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19〉 영구임대아파트 인지경로

		사례수	영구임대아파트 인지 경로					기타
			동사무소	TV	이웃	통반장	신문	
			%	%	%	%	%	%
전체		200	17.50	58.00	14.50	4.00	2.50	3.5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0	12.50	57.50	12.50	2.50	5.00	10.00
	서울 영구	27	40.70	51.90	3.70	3.70		
	서울 기타	33	6.10	66.70	15.20	3.00	6.10	3.00
	인천 영구	18	55.60	5.60	22.20	11.10		5.60
	인천 기타	82	8.50	68.30	17.10	3.70	1.20	1.20

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인지여부와 인지 경로

1) 공공임대아파트의 인지 여부 : 서울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를 알고 있는 주민들이 89%로 나타났지만,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알고 있는 주민이 10%로 매우 낮았다.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매우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표3-20〉 공공임대아파트 인지여부

		사례수	공공임대아파트 인지 여부	
			있다	없다
			%	%
전체		(288)	52.10	47.9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89.80	10.20
	서울 영구	(38)	60.50	39.50
	서울 기타	(41)	70.70	29.30
	인천 영구	(40)	10.00	90.00
	인천 기타	(120)	41.70	58.30

2) 공공임대아파트의 인지 경로 : 공공임대아파트의 인지 경로는 전체적으로 TV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모든 인터뷰 주민들이 공공임대아파트를 알게 되는 경로가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동사무소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는 적었고, 대부분 TV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표3-21〉 공공임대아파트 인지경로

		사례수	공공임대아파트 인지 경로					
			동사무소	TV	이웃	통반장	신문	기타
			%	%	%	%	%	%
전체		(136)	8.80	73.50	9.60	3.70	2.20	2.2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0)	15.00	60.00	15.00	2.50	5.00	2.50
	서울 영구	(18)	11.10	83.30	5.60			
	서울 기타	(26)	3.80	69.20	15.40	3.80	3.80	3.80
	인천 영구	(3)		66.70	33.30			
	인천 기타	(49)	6.10	83.70	2.00	6.10		2.00

라. 국민임대주택의 인지여부와 인지 경로

1) 국민 임대주택의 인지 여부 : 인터뷰 대상 주민들의 국민임대주택 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국민임대아파트를 모르는 주민들이 75%나 되었다는 점이다. 인천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전체적인 인지도가 낮은 것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주민이 대 다수 독거노인 혹은 장년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과 연관된다고 추측된다.

<표3-22> 국민임대주택 인지여부

	사례수	국민임대아파트 인지 여부		
		있다	없다	
		%	%	
전체	(288)	47.20	52.8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61.20	38.80
	서울 영구	(38)	52.60	47.40
	서울 기타	(41)	56.10	43.90
	인천 영구	(40)	25.00	75.00
	인천 기타	(120)	44.20	55.80

2) 국민임대주택의 인지 경로 : <표 3-23>에서 보듯이 인지 경로는 압도적으로 TV를 통한 것이다.

〈표 3-23〉 국민임대주택 인지경로

		사례수	국민임대주택 인지 경로					
			동사무소	TV	이웃	통반장	신문	기타
			%	%	%	%	%	%
전체		(116)	3.40	81.00	6.90	2.60	2.60	3.4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29)	3.40	72.40	13.80		6.90	3.40
	서울 영구	(13)		92.30	7.70			
	서울 기타	(22)		86.40		4.50	4.50	4.50
	인천 영구	(7)		57.10	14.30	14.30		14.30
	인천 기타	(45)	6.70	84.40	4.40	2.20		2.20

마. 매입임대주택의 인지여부와 인지 경로

1) 매입 임대 주택의 인지 여부 : 인터뷰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매입 임대주택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입임대주택의 인지 여부는 인터뷰 대상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3-24〉 매입임대주택 인지여부

		사례수	매입임대주택 인지 여부	
			있다	없다
			%	%
전체		(288)	13.90	86.1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18.40	81.60
	서울 영구	(38)	10.50	89.50
	서울 기타	(41)	14.60	85.40
	인천 영구	(40)	15.00	85.00
	인천 기타	(120)	12.50	87.50

2) 매입 임대 주택의 인지 경로 : 매입 임대주택의 인지 경로는 TV와 이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서울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인터뷰한 주민들 모두가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표3-25〉 매입임대주택 인지경로

		사례수	매입임대주택 인지 경로		
			TV	이웃	기타
			%	%	%
전체		(34)	73.50	23.50	2.9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9)	77.80	22.20	
	서울 영구	(3)	100.00		
	서울 기타	(6)	66.70	16.70	16.70
	인천 영구	(4)	50.00	50.00	
	인천 기타	(12)	75.00	25.00	

바. 집수리 사업단의 인지여부와 인지 경로

1) 집수리 사업단의 인지 여부 : 집수리 사업단에 대하여 인터뷰한 주민들 중 71% 정도가 그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수리 사업단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은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였고 그 비율은 40% 정도였다. 이것은 사업단의 특성상 수급권자의 집수리를 위하여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집수리 사업단이기에 그럴 것이라고 추측된다.

〈표3-26〉 집수리사업단 인지여부

		사례수	집수리 사업단 인지 여부	
			있다	없다
			%	%
전체		(288)	28.10	71.9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22.40	77.60
	서울 영구	(38)	26.30	73.70
	서울 기타	(41)	22.00	78.00
	인천 영구	(40)	40.00	60.00
	인천 기타	(120)	29.20	70.80

2) 집수리 사업단의 인지 경로 : 인터뷰한 주민들이 집수리 사업단을 알게 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TV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 중에서도 서울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60%정도가 TV를 통해 집수리 사업단을 알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통반장을 통하여 집수리 사업단을 알게 되는 경우가 7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3-27〉 집수리 사업단 인지경로

		사례수	집수리 사업단 인지 경로					
			동사무소	TV	이웃	통반장	신문	복지관
			%	%	%	%	%	%
전체		71	19.70	43.70	9.90	22.50	1.40	2.8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10	30.00	60.00		10.00		
	서울 영구	9	33.30	44.40			11.10	11.10
	서울 기타	8	12.50	37.50	25.00	12.50		12.50
	인천 영구	10	10.00	10.00	10.00	70.00		
	인천 기타	34	17.60	50.00	11.80	20.60		

사.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 제도의 인지여부와 인지 경로

1)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 제도의 인지 여부 : 인터뷰한 주민들은 은행 전세 자금 지원 대출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 영구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은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 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3-28〉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 제도 인지여부

		사례수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제도 인지여부	
			있다	없다
			%	%
전체		(287)	46.70	53.3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53.10	46.90
	서울 영구	(38)	57.90	42.10
	서울 기타	(41)	43.90	56.10
	인천 영구	(40)	12.50	87.50
	인천 기타	(119)	52.90	47.10

2)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 제도의 인지 경로 : 인터뷰한 주민들 중에서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주민들의 59%는 TV를 통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동사무소를 통해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 제도를 알게 된 주민이 30%였다. 인천 주택지역의 경우 TV를 통해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 제도를 알게 된 주민들이 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3-29〉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 제도 인지경로

		사례수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제도 인지 경로					기타
			동사무소	TV	이웃	통반장	신문	
			%	%	%	%	%	
전체		(101)	16.80	59.40	13.90	5.90	2.00	2.0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20)	20.00	45.00	15.00	15.00		5.00
	서울 영구	(13)	30.80	53.80	7.70			7.70
	서울 기타	(13)	15.40	38.50	15.40	15.40	15.40	
	인천 영구	(4)		50.00	50.00			
	인천 기타	(51)	13.70	72.50	11.80	2.00		

아. 최저 주거기준의 인지여부와 인지 경로

1) 최저 주거기준의 인지 여부 : 최저 주거기준에 대하여 인터뷰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 주거기준에 대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의 91%정도가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인천 지역보다 서울지역이 최저 주거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30〉 최저주거기준 인지여부

		사례수	최저주거기준 인지 여부	
			있다	없다
			%	%
전체		(285)	8.10	91.9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8.20	91.80
	서울 영구	(36)	11.10	88.90
	서울 기타	(40)	12.50	87.50
	인천 영구	(40)	7.50	92.50
	인천 기타	(120)	5.80	94.20

2) 최저 주거기준의 인지 경로 : 인터뷰한 주민들의 최저 주거기준의 인지 경로는 TV를 통해 많이 알게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서울 주택지역과 인천 지역 주민들 모두는 최저 주거기준을 알게 된 곳이 TV라는 점이다. 서울 공공임대 아파트의 주민들은 통반장을 통해 최저 주거기준을 알게 되는 비율이 25%정도 되었고, 서울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알게 되는 비율 역시 25%정도 되었다. 하지만 이외는 다르게 서울 주택과 인천 영구임대아파트, 그리고 인천 주택의 경우 최저 주거기준을 TV를 통해서만 알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표3-31〉 최저주거기준 인지경로

		사례수	최저주거기준 인지 경로		
			동사무소	TV	통반장
			%	%	%
전체		(18)	5.60	88.90	5.6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		75.00	25.00
	서울 영구	(4)	25.00	75.00	
	서울 기타	(4)		100.00	
	인천 영구	(1)		100.00	
	인천 기타	(5)		100.00	

자. 최저 생계비의 인지여부와 인지 경로

1) 최저 생계비의 인지 여부 : 인터뷰한 주민들은 최저 생계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최저 생계비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는 다르게 인천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 최저 생계비를 모르는 경우가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 지역은 대체적으로 최저 생계비를 많이 알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인천지역은 서울지역에 비해 최저 생계비의 인지 여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최저 생계비를 알고 있는 주민이 22.5%로 매우 낮았지만, 서울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인터뷰를 한 주민의 79.6%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32〉 최저생계비 인지여부

		사례수	최저생계비 인지 여부	
			있다	없다
			%	%
전체		(287)	53.00	47.0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79.60	20.40
	서울 영구	(38)	68.40	31.60
	서울 기타	(40)	75.00	25.00
	인천 영구	(40)	22.50	77.50
	인천 기타	(120)	40.00	60.00

2) 최저 생계비의 인지 경로 : 최저 생계비의 인지 경로는 대체적으로 TV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동사무소를 통해 최저 생계비를 알게 된 주민이 69%가 되었지만,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TV를 통해 최저 생계비를 알게 된 주민은 8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다.

〈표3-33〉 최저생계비 인지경로

		사례수	최저생계비 인지 경로					기타
			동사무소	TV	이웃	통반장	복지관	
			%	%	%	%	%	
전체		(129)	30.20	59.70	3.90	3.10	0.80	2.3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33)	21.20	66.70	6.10	3.00		3.00
	서울 영구	(23)	69.60	26.10				4.30
	서울 기타	(27)	22.20	63.00	3.70	7.40	3.70	
	인천 영구	(6)		83.30	16.70			
	인천 기타	(40)	25.00	67.50	2.50	2.50		2.50

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월세 지원

인터뷰한 주민 대부분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월세 지원을 모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로 보았을 때,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월세 등의 주거비가 지원된다는 사실을 85%정도가 모르고 있었다. 서울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월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26%의 주민이 알고 있었으나,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5%의 주민만이 알고 있었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월세 지원의 인지 여부는 인천지역 보다 서울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내용을 서로 다른 말로써 두 번 질문하였기 때문에, 그 제도에 사용되는 용어와 더불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표3-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월세 지원 인지여부

		사례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집값 보조 인지여부	
			알고있다	모른다
			%	%
전체		(288)	14.20	85.80
주거 특성 구분 - 5개	서울 공공	(49)	18.40	81.60
	서울 영구	(38)	26.30	73.70
	서울 기타	(41)	14.60	85.40
	인천 영구	(40)	5.00	95.00
	인천 기타	(120)	11.70	88.30

6. 지역사회 (동네)에 대한 인지

지역사회에 대한 인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간단히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나 단체, 이웃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동네 주변 환경의 경우 대상자 18%만 그런 사람에 대한 인지도가 있었고 이웃관계 개선의 경우 12.5%만 노력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알았다. 인지도의 평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지역별 분석은 의미가 없다.

〈표 3-35〉 동네 주변 환경을 잘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빈도	%
있다	52	18.1
없다	123	42.9
모르겠다	112	39
합계	287	100

〈표 3-36〉 이웃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빈도	%
있다	36	14.6
모른다	210	85.4
합계	246	100

7. 소결론

제 3장에서 지역간의 몇 가지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서울 영구임대 아파트와 인천 영구임대아파트는 대조적이다. 서울 영구임대아파트의 가구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와 경제활동 가구원 수가 더 많고 인천 영구임대 아파트는 독거노인이 많다. 서울 영구임대아파트는 인천 영구임대아파트보다 평수가 크고 일부 주민의 월세 부담과 수입이 훨씬 높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뿐 아니라 일반주택에서도 서울에 부부+자녀 가족형태가 더 많고 인천에는 단독 가구가 더 많다.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표본이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비교한 것이지만 서울이나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은 아니다.

IV. 대상 가구의 생활조건

1. 수입과 경제활동

제3장에서 주택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지역 가구의 현황을 보았고, 제4장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생활조건을 비교한다. 영구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가구들이 정부의 ‘대물보조’를 받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을 받은 적이 있는 가구는 ‘주거급여’, 즉 대인보조를 받고 있다. 정부를 통해 주거 대출금을 받은 경우도 ‘주거지원’이나, 대상 가구 중 9가구 밖에 없어 이것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표 4-1-1〉 정부주거지원 경험별 가구의 월평균수입

		사례수	월 가구 수입(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전체		(288)	98.45	89.27	80.00
정부주거지원 수급 형태	대물보조 + 대인보조	(87)	84.30	116.91	50.00
	대물보조	(40)	116.51	68.07	100.00
	수급경험	(54)	66.75	44.85	50.00
	지원없음	(107)	119.72	82.43	100.00

가. 수입

위 <표 4-1-1>에서는 중위수를 제일 신뢰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받은 적이 없는 사람간의 차이가 확실하다.(50만원 대 100만원) 그러나 건물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은 사람 중에 더 높은 수입을 얻거나 또는 수입을 과장해서 대답한 가구로 인해 평균(84만원)이 중위수(50만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급경험”한 가구중에 5/6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며 1/6은 과거에 받았지만 현재 받지 않고 있다(<표4-1-2>참조). 이것 때문에 “수급경험”범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상한 수입보다 더 높은 수입을 가지는 가구가 많다.(136만원 이상 14.5%. <표4-1-3> 참조)

<표 4-1-2> 정부 주거지원 경험 가구 수

대인보조 대물보조	받고 있다	받았지만 지금		받은 적이 없다	합계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받고 있다	75	12	40	127	
받지 않는다	45	9	107	161	
합계	120	21	147	288	

〈표 4-1-3〉 수입 - 4분위 집단별 구성비

		사례수	수입(4분위)			
			40만원 이하 (4/4분위)	41~80 만원 (3/4분위)	81~135 만원 (2/4분위)	136만원 이상 (1/4분위)
			%	%	%	%
전체		(261)	27.20	26.80	21.10	24.90
정부 주거지원 수급 형태	주거지원 + 수급경험	(76)	32.90	35.50	17.10	14.50
	주거지원	(33)	12.10	27.30	30.30	30.30
	수급경험	(52)	40.40	32.70	17.30	9.60
	지원없음	(100)	21.00	17.00	23.00	39.00

가구의 월 수입을 4분위로 나누어서 보면 40만원 이하의 월 수입을 받는 가구는 27.2%이다. 아무 지원도 받지 않는 가구 중에도 이 낮은 수준의 수입을 벌고 있다.

나. 경제활동

〈표 4-1-4〉 정부주거지원 경험별 가구원 수

		사례수	경제활동 가구원 수		
			없음	1명	2명 이상
			%	%	%
전체		(286)	32.2	47.9	19.9
정부주거 지원 수급 형태	주거지원+ 수급경험	(87)	49.4	33.3	17.2
	주거지원	(39)	17.9	51.3	30.8
	수급경험	(53)	43.4	41.5	15.1
	지원없음	(107)	17.8	61.7	20.6

어렵게 사는 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간의 경제적 능력도 다르고, 주거안정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표 4-1-4>에서 보듯이 ‘수급 경험’ 가구는 경제활동 가구원 수가 전혀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있어도 1명 정도이다.

2. 주거의 마련과 유지

가. 점유형태별 구입비 또는 보증금

<표4-2-1> 현 거주 주택 점유 형태

		사례수	주택_점유_형태					무상
			자가	전세	보증부_월세	월세	사글세	
			%	%	%	%	%	
전체		(287)	13.90	25.80	50.20	8.00	1.00	1.00
정부주거지원 수급 형태	주거지원 + 수급경험	(87)	1.10	5.70	90.80	2.30		
	주거지원	(39)	2.60	41.00	51.30	2.60	2.60	
	수급경험	(54)	16.70	29.60	29.60	18.50	1.90	3.70
	지원없음	(107)	27.10	34.60	27.10	9.30	0.90	0.90

<표4-2-2> 주거투입비용

		사례수	주거투입비용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전체		(288)	1227.27	1313.64	700.00
정부주거 지원 수급 형태	주거지원 + 수급경험	(87)	553.29	759.04	190.00
	주거지원	(40)	1842.24	1323.00	2000.00
	수급경험	(54)	877.44	887.70	500.00
	지원없음	(107)	1799.82	1533.71	1500.00

1) 점유 형태

정부의 임대주택의 경우 전세나 월세가 가능하다. (“자가”의 대답은 조사원의 실수 탓) 수급경험을 한 이 가구중에 5.7%만 전세를 냈지만 수급경험 없는 가구들중에 41%가 전세를 냈다. 지원받지 않은 가구들 중에 62%가 자기 집을 소유하거나 전세를 냈다.(<표 4-2-1> 참조)

2) 주거투입 비용

3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거투입비용(자기 집 가격,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계산했다. 주거지원 수급형태별(<표 4-2-2> 참조)로 보면 주거지원만 받은 가구의 주거투입 비용의 중위수가 제일 높다.

나. 주거비 부담

<표4-2-3> 주거투입비용 - 4분위 집단별 구성 비

		사례수	주거투입비용(4분위)			
			190만원이하 (4/4 분위)	191~700 만원 (3/4분위)	701~2000만 원 (2/4분위)	2001만원 이상 (1/4분위)
			%	%	%	%
전체		(241)	28.20	22.00	29.00	20.70
정부 주거지원 수급 형태	주거지원 +	(80)	53.80	23.80	17.50	5.00
	수급경험					
	주거지원	(33)	6.10	15.20	36.40	42.40
	수급경험	(43)	27.90	30.20	30.20	11.60
	지원없음	(85)	12.90	18.80	36.50	31.80

<표 4-2-4> RIR(rent income ratio)

		사례수	월세 (만원)	주거투입 비용	월 가구 수입(만원)	RIR
			중위수	중위수	중위수	
전체		(241)	10.00	700.000	80.00	.16
정부주거지원 수급 형태	주거지원 + 수급경험	(80)	4.00	190.000	50.00	.10
	주거지원	(33)	7.80	2000.000	100.00	.16
	수급경험	(43)	13.00	500.000	50.00	.30
	지원없음	(85)	14.00	1500.000	100.00	.20

주거비 부담을 RIR로 계산했는데(<표 4-2-4> 참조) 대물보조, 대인보조를 받

거나 받지 않은 4가지 범주를 비교했다. 대물보조 받은 임대아파트 주민의 주거비 부담이 (RIR=.10 또는 .16), 그 지원 없이 생활하고 있는 주민의 부담 (RIR=.30 또는 .20)보다 작은 것이 드러났다. 특히 대물보조 없이 수급권자로서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의 부담(RIR=.30)이 제일 크다. 이것은 그 제도의 비현실성을 잘 보여준다.

3. 가족형태

<표 4-3-1> 가족구성 형태

		사 례 수	가구 유형							기타
			단독 세대	부부 세대	부모+ 자녀	편부모+ 자녀	조부모 +부모+ 자녀	조손 세대	친인척 +부부+ 자녀	
			%	%	%	%	%	%	%	
전체		288	24.70	9.40	33.00	19.10	3.80	3.10	1.00	5.90
정부 주거 지원	주거지원 + 수급경험	87	21.80	11.50	31.00	19.50	4.60	2.30		9.20
	주거지원	40	7.50	20.00	45.00	12.50	2.50	2.50	5.00	5.00
수급 형태	수급경험	54	38.90	1.90	20.40	24.10	3.70	5.60		5.60
	지원없음	107	26.20	7.50	36.40	18.70	3.70	2.80	0.90	3.70

기초생활보장 지급은 부모자녀 세대보다 편부모 세대와 독거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표 4-3-1>에서 대물보조만 받는 가구의 가족 구성에 “부부세대”와 “부모자녀세대”와 “조부모·부모·자녀세대”와 “친인척·부부·자녀세대”가 제일 많은 것(72.5%)이 놀랍지 않다. 그렇지만 좁고 다양하지 않은 정부의 임대아파트에 밀도현상이 있게 되는 것은 6장에서 더 자세히 밝히겠다. 지원없는 가구의 가족 구성에 부부가 같이 있는 세대는 더 적은 48.5%가

된다. 그 차이는 지원없는 가구중에 단독세대 26.2%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독세대가 대물보조 아파트에 입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단독세대가 제일 많은(38.9%) 범주는 대물보조 없이 세대주가 여성의 경우 주로 단독세대나 편부모자녀세대나 조손세대다. 그래서 여성 세대주의 높은 비율(42.5%, 53.7%)은 수급경험 가구에 있다.<표 4-3-2> 참조)

<표 4-3-2> 세대주의 성별

		사례수	세대주_성별	
			남	여
			%	%
전체		(288)	60.10	39.90
정부주거지원 수급 형태	주거지원 + 수급경험	(87)	57.50	42.50
	주거지원	(40)	77.50	22.50
	수급경험	(54)	46.30	53.70
	지원없음	(107)	62.60	37.40

<표 4-3-3> 세대주의 연령별 빈도분포

		사례수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	%	%	%	%
전체		(288)	1.70	39.20	18.80	21.90	18.40
정부주 거지원 수급 형태	주거지원 +	(87)		29.90	21.80	28.70	19.50
	수급경험						
	주거지원	(40)		40.00	12.50	30.00	17.50
	수급경험	(54)		40.70	18.50	18.50	22.20
	지원없음	(107)	4.70	45.80	18.70	15.00	15.90

세대주의 연령별 차이가 제일 뚜렷한 것은 대물보조 받는 두 범주에 60대 이상 세대주가 훨씬 많고(거의 50%) 일반 주택에 사는 가구에는 50대 이하 세대주가 더 많다. 그리고 30~40대 세대주는 주거지원과 수급경험을 같이 제공받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소결론

제 4장에서 대물·대인보조를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를 비교했는데 기대 그대로 수급권 경험 가구의 경제 상태가 제일 열악하고, 그들의 가족형태는 단독세대나 여성가장 편부모 자녀세대가 더 많다. 대물지원 받지 못하는 수급권 경험 가구의 RIR(주거비 부담)지수가 제일 높은 것은 주거급여의 비현실성을 보여준다.

V.주거 및 동네에 대한 의견과 만족도

1. 집과 동네에 대한 의견

가. 개방된 질문에 표현한 의견

면담을 시작하는 조사원들이 먼저 “집과 동네에 대한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좋은 점과 나쁜 점” 하고 물어보았다. 대상자의 대답 그대로 적은 다음에 일반적 만족을 물어보고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물어봤다. 연구팀은 개방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범주화한 후에 각 대상자의 답이 있는 그대로 좋은 점 0개 내지 2 개, 나쁜 점 0개 내지 2 개씩 입력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말한 대답의 빈도분포와 %를 계산했다. 이 내용을 아파트와 일반주택별로 <표 5-1-1>과 <표 5-1-2>에 요약했다.

<표5-1-1> 주거형태별 만족 사유

	주택 유형			
	아파트		일반주택	
전체	149	100.0%	101	100.0%
조용하다	4	2.7	4	4.0
채광	10	6.7	3	3.0
공기	24	16.1	10	9.9
공원산책	17	11.4	5	5.0
살기_편함	32	21.5	19	18.8
주변시설	12	8.1	3	3.0
교통	17	11.4	9	8.9

<표 계속>

이웃	11	7.4%	20	19.8%
교육환경	9	6.0%	4	4.0%
집_건물	8	5.4%	12	11.9%
주거환경	5	3.4%	5	5.0%
기타	0	0.0%	7	6.9%

〈표5-1-2〉 주거형태별 불만족 사유

	주택 유형			
	아파트		일반주택	
전체	90	100.0%	164	100.0%
소음	12	13.3	7	4.3
위험	2	2.2	2	1.2
청결	5	5.6	5	3.0
주변 환경	9	10.0	28	17.1
집 크기	14	15.6	15	9.1
집 불편	2	2.2	52	31.7
교통	4	4.4	4	2.4
이웃	12	13.3	3	1.8
내부환경	7	7.8	18	11.0
집 좁다	2	2.2	8	4.9
주차문제	3	3.3	4	2.4
지역발전미비	2	2.2	2	1.2
기타	16	17.8	16	9.8

좋은 점을 지적하는 표현 ‘살기 편하다’ (아파트 주민의 대답 149개 중에 21.5%, 일반 주택 주민의 대답 101개 중에 18.8%) 고 하는 것이 제일 많았다. 이 표현은 특히 인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승강기와 다른 편의 시설을 애매하게 지적한 것 같다. 이 표현의 반대 말 ‘집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주택 주민의 대답 164개 중에 31.7% 되는 52개이었다. 주민들은 억지로 나쁜 점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일반주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지적했다.

아파트에서 ‘공기가 좋다’고하는 표현이 두 번째 많았고 ‘공원, 녹지, 산책로’와 같은 대답은 세 번째 많았다. 일반 주택에서 ‘이웃이 좋다’ ‘잘 어울린다’고 하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살기 편함’, 세 번째는 건물 자체 좋다고 했다. 그렇지만 일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말했다. ‘집 불편하다’고 하는 것 외에도 ‘지저분하다’고 하거나 ‘냄새난다’고 해서 주변 환경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낡은 내부 환경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많았다. 아파트 주민들의 대답 중에 집이 너무 좁다고 하는 것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웃이 싸우고 술 취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세 번째 지적한 것은 소음 문제이었다.

나. 이사해야 한다는 생각

대상가구 121개에서 “이사해야 한다”고 하는 대답을 받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73%는 “주거환경 개선 필요”라고 했다. (<부록 표 14> 참조)

이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분석은 다음 절에 있다.

2. 만족도에 대한 다중변수회귀분석

가. 일반적 만족도와 안정

1) 일반적 만족도

〈표 5-2〉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일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 및 통제변수	회귀계수(coef.)	베타	t
(상수)	1.965 ***		10.699
대물보조	0.757 ***	0.39	5.49
수급경험	0.264 *	0.136	1.976
도시	-0.143	-0.073	-1.098
1인당 주거 면적	6.09E-02 ***	0.228	3.81
주거투입비용	4.78E-05	0.064	0.971
경제활동비율	1.19E-03	0.045	0.761
R ²	0.254		
N	236		

*** p<.001 ** p<.01 *p<.05

만족도의 분석을 위해서 ‘매우 불만’=1, ‘불만’=2, ‘그저 그렇다’=3, ‘만족’=4, ‘매우 만족’=5의 계량화시켜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론적인 평균은 3.0이다. 정부의 대물보조 (‘주택 유형’ 아파트=1, 일반주택=0)과 주거급여 (‘수급경험’, 수급경험=1, 경험없다=0)를 주된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그 변수의 만족도에 대한 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도시 (서울=0, 인천=1), 1인당 주거 면적, 주거투입비용, 그리고 가구원의 경제활동비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회귀분석의 모형 요약, 분산분석, 계수들은 <표 5-2>에 있다. 이 회귀분석 모델 (모형 1 ‘입력’)의 Multiple R의 값이 .504이며 분산분석의 F비는 13.022, 제1종 오류 범할 확률이 <.001 이다. 그러면, 정부의 주거지원의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 유의수준 .05를 사용하는데 주거급여의 영향은 겨우 의미한 (t=1.976, p=.049) 것으로 그의 표준화 계수 베타는 0.136이다. 이것과 비교하면 건물지원 (아파트)의 영향은 거의 3 배 더 큰 베타 계수는 0.39이다. 그리고 통제변수 중에 1인당 주거면적만 유의한데, 그 베타계수 값이 0.23이다. 다중 독립변수간의 공선성(collinearity)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기위해서 ‘stepwise’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해서 공차한계(tolerance)통계량을 계산했더니 그 수준은 문제가 전혀 없는 0.7 내지 1.0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 모집단에 대해서 요약하면

주민들의 주거와 동네에 대한 일반 만족도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 주택보다 정부의 임대 아파트, 그리고 1인당 더 넓은 면적이 만족을 더 일으키며, 기초생활보장과 주거급여는 약간의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2) 이사해야 할 생각

일반적 만족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사해야 할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이 종속변수에 대해서 일반적 만족도와 같은 회귀분석을 실행했다. (<표 5-3> 참조) 그 생각이 없는 것을 일반적인 만족도 또는 주거안정의 지수로 여겨서 해석한다. 이 질문에 대한 무응답 39사례때문에 자유도가 210이지만 Multiple R=.525 비교적 높은 편이다. 유의확률 <.05기준으로 그 안정성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우선 임대아파트 생활(베타=.357), 두번째 1인당 면적(베타=.294), 세번째 인천에 사는 것(베타=.236)이다. 주거급여, 즉 수급경험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된다. 이 분석 결과는 일반 만족도에 대한 분석과 유사하다.

<표 5-3>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이사해야 할 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 및 통제변수	회귀계수(coef.)	베타	t
(상수)	1.152 ***		12.018
대물보조	0.356 ***	0.357	4.843
수급경험	9.88E-03	0.01	0.136
도시	0.235 ***	0.236	3.408
1인당 주거 면적	4.01E-02 ***	0.294	4.701
주거투입비용	-4.75E-05	-0.126	-1.808
경제활동비율	-2.07E-03 *	-0.144	-2.342
R ²	0.276		
N	211		

*** p<.001 ** p<.01 *p<.05

나. 건물의 하자, 습기, 채광, 통풍 등에 대한 만족도

이 세 가지 종속 변수, 즉, 건물 하자, 습기, 그리고 채광-통풍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또 같은 회귀분석 계수를 보여 준다. 그래서 그 분석의 결과를 세 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함께 설명하겠다. 그 모형 요약과 분산분석과 계수들은 <표 5-4>, <표 5-5>, <표 5-6>에 있다. 모든 경우에 대물보조의 베타계수는 압도적으로 다른 독립변수보다 더 크다. 이 의미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다 통제해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상자들은 일반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 건물 하자, 습기, 채광, 통풍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고, 일반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훨씬 많다.

건물에 대한 이 세 가지 만족도에 대한 주거급여의 영향은 하자와 습기에 거의 없지만, 채광-통풍에 있어서는 약하지만 유의한 수준의 베타계수 (=0.141)가 있다.

다. 면적, 방의 수

집의 면적과 방의 수에 대한 만족을 위와 같이 분석했지만, 독립변수에서 '1인당면적'을 뺐다. 표현한 만족도의 평균은 2.0, 즉, "불만"이지만 상대적으로 만족을 표현하는 곳은 인천 (베타계수=.367과 .341)이고 또한 주거에 대한 투입 비용(전세, 보증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이다. 아파트에 사는 것이 대상자의 만족도를 약간 높이는 영향이 드러났다. 사실, 서울에 있는 대상 영구임대 아파트의 주거 중에 상대적으로 넓은 (18평) 주거가 있다. (<표 5-7>, <표 5-8> 참조)

라.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영향은 서울보다 인천, 일반주택보다 아파트, 그리고 약하지만 집의 1인당면적이다. 사실, 인천의 효과를 보여주는 베타계수는 0.426으로 다른 영향보다 훨씬 크다. 이 도시간의 차이는 객관적

인 시설의 차이 때문인지, 주민의 상수도과 하수도에 대한 기대의 차이인지 우리 연구 자료로 구별할 수 없다. (<표 5-9> 참조)

<표 5-4>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건물하자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 및 통제변수	회귀계수(coef.)	베타	t
(상수)	1.886 ***		8.8
대물보조	0.799 ***	0.361	4.971
수급경험	0.242	0.109	1.551
도시	-0.103	-0.046	-0.677
1인당 주거 면적	4.80E-02 *	0.157	2.571
주거투입비용	1.83E-04 **	0.213	3.173
경제활동비율	-2.07E-03	-0.068	-1.137
R ²	0.22		
N	238		

*** p<.001 ** p<.01 * p<.05

<표 5-5>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습기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 및 통제변수	회귀계수(coef.)	베타	t
(상수)	1.689 ***		8.112
대물보조	1.158 ***	0.501	7.412
수급경험	0.259	0.112	1.708
도시	-0.141	-0.061	-0.959
1인당 주거 면적	4.47E-02 *	0.14	2.463
주거투입비용	1.22E-04 *	0.137	2.188
경제활동비율	3.57E-04	0.011	0.201
R ²	0.323		
N	238		

*** p<.001 ** p<.01 * p<.05

〈표 5-6〉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채광, 통풍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 및 통제변수	회귀계수(coef.)	베타	t
(상수)	1.731 ***		7.222
대물보조	1.169 ***	0.449	6.499
수급경험	0.367 *	0.141	2.104
도시	-0.264	-0.101	-1.555
1인당 주거 면적	2.94E-02	0.082	1.41
주거투입비용	8.86E-05	0.088	1.376
경제활동비율	5.08E-04	0.014	0.249
R ²	0.294		
N	238		

*** p<.001 ** p<.01 * p<.05

〈표 5-7〉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1인 면적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 및 통제변수	회귀계수(coef.)	베타	t
(상수)	1.619 ***		7.613
대물보조	0.319	0.148	1.923
수급경험	6.72E-02	0.031	0.417
도시	0.798 ***	0.367	5.143
주거투입비용	1.56E-04 **	0.189	2.7
경제활동비율	2.30E-03	0.078	1.223
R ²	0.118		
N	238		

*** p<.001 ** p<.01 * p<.05

〈표 5-8〉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방의 수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 및 통제변수	회귀계수(coef.)	베타	t
(상수)	1.696 ***		7.569
대물보조	0.465 **	0.205	2.658
수급경험	-0.118	-0.052	-0.698
도시	0.778 ***	0.341	4.761
주거투입비용	1.95E-04 ***	0.227	3.218
경제활동비율	-1.61E-04	-0.005	-0.081
R ²	0.111		
N	238		

*** p<.001 ** p<.01 * p<.05

마. 집의 주변 상황과 접근성

1) 공원 · 녹지 · 놀이터

지금까지 집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봤지만 이제 살고 있는 집의 주변이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겠다. 공원이나 녹지나 놀이터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별로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수정된 R 제곱은 .095 밖에 안 된다) 그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수급경험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의 수급경험 대상자들은 수급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 쉽겠다. (<표 5-10> 참조)

2) 치안 문제

도둑이나 비행청소년과 같은 치안 문제에 대한 만족도를 같은 변수로 분석했지만, 이 독립변수들이 그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없다. (수정된 R 제곱은 .067이다.) 회귀분석의 베타계수 값을 보면 아파트에 사는 것은 불만을 일으키는 효과가 낮지만, 수급경험은 반대로 만족을 좀 더 일으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치안 문제의 객관성을 더 잘 설명하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지 않은 한 이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 (<표 5-11>참조)

3) 자녀교육환경

자녀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약한 설명력이 있는 이 모델 (수정된 R 제곱 = .08)에는 유의한 베타 값이 대물보조 (.234)뿐이다. 아파트에 사는 영향이 약하지만 적극적이다. (<표 5-12> 참조)

4) 주차

이 분석의 결과는 거의 상식 수준이다. 이 모델이 설명할 수 있는 만족도의 차이는 거의 다 아파트에 사는 차이이다. 영구임대나 공공임대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있고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연구 대상 주택지역에 주차할 곳이 거의 없다. 그래서 대물보조의 베타계수 값(0.449)이 잘 알려진 사실을 반영하다. (<표 5-13> 참조)

5) 대중교통

이 연구에 사용하는 독립변수들은 대상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약 18% (수정된 R 제곱 참조)이며, 그 설명해주는 변수는 도시와 대물보조

다. 아파트에 사는 것 (베타계수=.333)과 서울에 사는 것 (도시 베타계수 = -.217)은 만족도를 높이는 영향을 보여준다. (<표 5-14> 참조)

<표 5-9>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 및 통제변수	회귀계수(coef.)	베타	t
(상수)	2.607 ***		13.216
대물보조	0.559 ***	0.28	3.773
수급경험	-0.235	-0.118	-1.636
도시	0.855 ***	0.426	6.123
1인당 주거면적	4.40E-02 *	0.159	2.559
주거투입비용	-1.90E-06	-0.002	-0.036
경제활동비율	-8.35E-04	-0.031	-0.498
R ²	0.186		
N	238		

*** p<.001 ** p<.01 * p<.05

<표 5-10>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공원·녹지·놀이터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 및 통제변수	회귀계수(coef.)	베타	t
(상수)	2.72 ***		11.905
대물보조	1.27E-02	0.006	0.075
수급경험	0.702 ***	0.324	4.288
도시	-0.237	-0.108	-1.479
1인당 주거면적	6.67E-03	0.022	0.335
주거투입비용	-2.59E-05	-0.03	-0.418
경제활동비율	6.93E-05	0.002	0.036
R ²	0.119		
N	235		

*** p<.001 ** p<.01 * p<.05

〈표 5-11〉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도둑·비행청소년·치안문제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 및 통제변수	회귀계수(coef.)	베타	t
(상수)	2.589 ***		11.975
대물보조	-0.462 **	-0.226	-2.846
수급경험	0.546 ***	0.267	3.467
도시	-0.131	-0.064	-0.856
1인당 주거면적	6.22E-03	0.022	0.33
주거투입비용	7.40E-05	0.094	1.275
경제활동비율	1.56E-03	0.056	0.846
R ²	0.067		
N	238		

*** p<.001 ** p<.01 * p<.05

〈표 5-12〉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자녀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 및 통제변수	회귀계수(coef.)	베타	t
(상수)	1.945 ***		10.194
대물보조	0.417 **	0.234	2.918
수급경험	0.185	0.104	1.352
도시	-0.169	-0.094	-1.253
1인당 주거면적	2.76E-02	0.109	1.642
주거투입비용	6.09E-05	0.088	1.208
경제활동비율	1.09E-03	0.045	0.679
R ²	0.105		
N	231		

*** p<.001 ** p<.01 * p<.05

〈표 5-13〉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주차문제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 및 통제변수	회귀계수(coef.)	베타	t
(상수)	1.674 ***		8.203
대물보조	0.941 ***	0.449	6.095
수급경험	9.01E-02	0.043	0.607
도시	-3.60E-02	-0.017	-0.247
1인당 주거면적	4.91E-02 **	0.161	2.645
주거투입비용	7.74E-05	0.091	1.385
경제활동비율	-1.51E-03	-0.053	-0.867
R ²	0.238		
N	231		

*** p<.001 ** p<.01 * p<.05

〈표 5-14〉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 및 통제변수	회귀계수(coef.)	베타	t
(상수)	2.551 ***		10.401
대물보조	0.835 ***	0.333	4.542
수급경험	-0.261	-0.104	-1.459
도시	-0.548 **	-0.217	-3.145
1인당 주거면적	1.94E-03	0.006	0.091
주거투입비용	-2.39E-06	-0.002	-0.036
경제활동비율	2.36E-03	0.069	1.13
R ²	0.203		
N	237		

*** p<.001 ** p<.01 * p<.05

3. 소결론

이 장에서 도시, 일인당 집 면적, 주거투입 비용, 가구의 경제활동 비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면서 대물보조와 대인보조가 주민의 집과 동네에 대한 만족도를 얼마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대인보조, 즉 주거급여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반면에 대물보조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일반주택과 비교할 때 만족도를 높이는 영향을 보여준다. 편리한 시설, 건물하자, 습기, 채광, 통풍, 주차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만족을 높이는 효과가 드러났다. 그렇지만 임대아파트 생활은 면적이나 방의 수에 대한 만족을 거의 높이지는 못했다.

VI. 최저주거기준 달성과 미달

1. 최저주거기준의 요소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최저주거기준은 첫째 가구원수에 따른 방의 수와 일인당 면적, 둘째 전용부엌과 화장실, 셋째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넷째 구조·성능·환경이 양호한 상태를 말한다. 이 연구의 대상 가구 중 상수도가 없는 곳이 없었고 구조·성능·환경의 양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상 주거의 기준 충족이나 미달은 방의 수, 일인당 면적, 전용부엌, 전용화장실 네 가지 기준을 측정했다. 그리고 집이 좁아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와 5세 이상의 자녀가 부부와 함께 침실을 사용하거나 9세 이상의 남·여 자녀가 함께 침실을 사용하는 것도 ‘방의 수 미달’의 경우로 측정했다.

영구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용부엌과 전용화장실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곳의 최저주거기준 문제는 다양성이 없는 이 아파트 주거에 4명 혹은 5명의 식구가 생활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정부의 건물지원과 주거급여가 대상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충족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표6-1-1>부터 <표6-1-4>까지 네 가지 요소의 기준충족과 미달의 분포도가 나타난다. 제일 많이 미달한 요소는 방의 수이고 제일 충족된 요소는 전용부엌이다. 모든 요소의 기준을 충족시킨 가구는 143가구이고, 1건만 미달한 가구는 90가구이며, 중복 미달한 가구는 44가구이다(<표6-2-1>참조).

〈표6-1-1〉 최저주거기준 - 면적

구 분	빈도	%
충족	224	78.3
미달	62	21.7
합계	286	100

〈표6-1-2〉 최저주거기준 - 방수

구 분	빈도	%
충족	278	99.3
미달	2	0.7
합계	280	100

〈표6-1-3〉 최저주거기준 - 부엌

구 분	빈도	%
충족	281	97.9
미달	6	2.1
합계	287	100

〈표6-1-4〉 최저주거기준 - 화장실

구 분	빈도	%
충족	244	84.7
미달	44	15.3
합계	288	100

〈표6-2-1〉 최저주거기준-전체-건수

구 분	빈도	%
충족	143	51.6
1건-미달	90	32.5
2건-미달	38	13.7
3건-미달	5	1.8
4건-미달	1	0.4
합계	277	100

〈표6-2-2〉 최저주거기준-전체-충족/미달

구 분	빈도	%
충족	143	51.6
미달	134	48.4
합계	277	100

2. 정부주거지원이 최저주거기준 충족에 준 영향측정

정부주거지원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보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는지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주거의 위치(인천=1, 서울=0), 가구원수의 경제활동비율과 주거투입비용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해서 그 영향을 회귀분석 방법으로 추정했다. 그 모형 요약과 분산분석 및 계수들이 <표 6-3>에 있다. 사용한 변수는 기준충족의 차이를 12%밖에 설명하지 못하지만, F 값이 (7.2)커서 통계학적 의미가 있다. 3개의 변수의 영향이 제일 크고, 첫째 주

거투입비용(베타=0.32), 둘째 도시(베타=0.30), 셋째 대물보조(베타=-0.246). 이 의미는 주거투입비용과 인천에 위치한 것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도와 주지만, 정부의 아파트에 생활하는 것은 오히려 기준미달현상을 일으킨다. 3장에서 보았듯이 서울 임대아파트에 부모와 자녀 같이 사는 가족이 많고, 그리고 <부표 54>, <부표 55>, <부표 56>에서 볼 수 있듯이 5살 이상 아이가 부모와 같이 침실을 사용하는 경우와 9살 이상의 남·여 자녀가 침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와 집이 좁아서 같이 살지 못하는 미혼 자녀의 경우가 많다. 이것은 임대 아파트의 다양성 없는 구조의 부작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5장 2절에 설명한 방법으로 공선성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표 6-3> 정부의 대물보조와 주거급여와 통제변수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 및 통제변수	회귀계수(coef.)	베타	t
(상수)	0.339 ***		5.207
대물보조	-0.245 ***	-0.246	-3.219
수급경험	-6.12E-02	-0.061	-0.819
도시	0.301 ***	0.3	4.241
경제활동비율	1.31E-03	0.096	1.52
주거투입비용	1.23E-04 ***	0.32	4.559
R ²	0.137		
N	232		

*** p<.001 ** p<.01 * p<.05

3. 최저 주거기준 상태에 따른 주거지원의 인지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최저주거기준 충족 가구와 미달

가구의 인지도를 비교했다.<표 6-4> 참조) 인지도 지수는 9가지 프로그램이나 용어들 중에 인식하고 있는 수이다. 미달 가구에서 평균 3.72개를 인식했고 충족가구에서 평균 3.17개를 인식했다. 이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t=2.33$, $p=.021$) 그래서 미달가구들은 충족가구보다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알고 있다는 것이 분석된다. 그래도 그 지식의 정도는 매우 부족하다.(3장 5절 참조)

<표 6-4> 최저주거기준 상태별 대상자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비교

		인지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수			t
		N	평균	표준편차	
최저주거 기준상태	미달	134	3.7239	1.9249	2.329 *
	충족	143	3.1678	2.0418	

* $p<.05$

VII. 결론

1. 가설 검증

가. 주거급여지급이 최저주거기준 충족과 관계가 없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주거급여가 적절한 주거비용보다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장했다. 기존의 연구에서와 이 연구에서도 비슷한 생활수준의 주거급여 수급권자와 비수급권자를 비교한 결과 주거급여를 받은 경험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는 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을 밝혀냈다. 이것은 제 6장의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서 검증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물보조는 주민의 만족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밀도 현상 때문에 최저주거기준 충족보다 미달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나. 대상 주민들은 주거급여나 다른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가 낮다.

대상가구의 반 정도가 공공임대나 영구임대 주민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주거급여, 자활후견 집수리 사업단, 전세 대출기금에 대한 인지를 가지는 대상자는 8% 내지 28%뿐이다.

다. 주거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는 사람과 접촉이 거의 없다.

이 가설 그대로 확인 되었다. 이 사실을 70년대와 80년대의 가족 계획 프로

그럼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전문지식을 가지는 사람과의 접촉은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며, 이것은 잘 알려진 지식(사실)이다.

라. 이웃관계, 주변 환경 개선, 도시 서비스에 대한 관심.

Focus Group 참여자들은 이웃관계 개선,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표현했지만, 면접조사 대상 가구에서는 이러한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았다. 그 차이를 규명하지 않았지만 Focus Group 참여자들이 시민단체와 접촉이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2. 연구의 활용성 및 기대 효과

이 연구는 우선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활용할 것 같다. 이 연구 모집단 즉, 3개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직접 적용하기보다 시민단체들이 그들의 지역에 대한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거와 동네에 대한 임대아파트 주민의 만족도와 그 밀도 문제, 그리고 일반주택 주민의 주거비 부담과 집에 대한 불만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들의 활동방향을 더 잘 선정할 수 있겠다.

이 연구의 한계성 때문에 주거복지 정책에 직접 활용하기보다 더 규명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거복지 정책인 대물보조와 대인보조를 평가하는 데에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는 목적 달성 효과를 더 잘 규명해야 할 필요가 드러났다. 이것은 기존연구에서 제안한 주거급여 개선방향 즉, '최저주거보장'을 재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도 프로그램 실행에 전문가와 대상 주민의 접촉도 더 많이 추진해야 하는 것이 드러났다.

3. 연구의 한계성

미리 언급했듯이 이 연구의 결과를 보편화하기 어렵고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한해서 적용해야 하는 한계성이 제일 크다. 그리고 실태조사 중에 대상자의 경제 수준을 자세히 규명할 수가 없었다. 수입과 월세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만 지출과 저축과 빚을 대상자들이 조사원의 설득을 신뢰하지 않고 잘 알려주지 않았다.

참고문헌

- 강서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소득층 집중거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강서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건설교통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제6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안 건. 2003년 5월 28일. 건설교통부, 2003.
- 건설교통부, 임대료보조제도 확대도입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4.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5.
-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1999.
- 대한주택공사, [주거복지백서: 주택정책의 계층성평가를 중심으로], 대한주택공사, 2002.
- 보건복지부·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현실화 방안, 보건복지부·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소,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소, 2004.
- 한국도시연구소, [하비타트 의제와 이스탄불 선언], 한국도시연구소, 199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거급여 개선방안” 2005년 9월 15일 토론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주거복지시장 현황과 집수리자활사업 발전방안,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4.

부록 1. 연구를 수행한 시민사회단체 연구

주거 안정, 주거 급여 연구 중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

연구의 목적

한국 보건 복지부의 주거 안정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연구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조사하였다. 시민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어떠한 교류가 있는지, 주민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 그 효과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자체 평가를 기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연구 방법

한국 보건 복지부의 주거 안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독립문 평화의 집과 성동 평화의 집, 그리고 인천 참여 자치연대 세 곳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시민단체에 속하지 않은 대학원생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우선 이 글을 쓴 연구원은 독립문 평화의 집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였다. 독립문 평화의 집과 그 지역의 주민 관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될 것이다. 독립문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거 안정 연구에 대한 인터뷰에 참여함으로써, 독립문 평화의 집과 그 지역의 주민과의 연관성과 주민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표와 당면 과제를 살펴보고, 그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 이와 비교하여 독립문 평화의 집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와의 교류와 연관성을 살펴본다. 그 이후에 이 연구는 성동 평화의

집과 인천 참여 자치연대에 속해 있는 실무자들에게 심층 면접을 통해 그 지역에 대한 활동과 지역 사회의 변화를 기록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은 독립문 평화의 집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였고, 실무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러므로 독립문 지역에 중점을 두고 연구원이 활동하였기 때문에, 독립문 지역의 실무자들과 주민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성동 평화의 집과 인천 참여자치연대의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연구를 통해 밝혀내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 글의 뒷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 참여자치연대는 평화의 집과는 성격이 달라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평화의 집과 참여자치연대의 활동구분을 통해 각 지역의 다른 활동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의 인터뷰 대상자

독립문 평화의 집 : 박문수 신부님, 동경희 선생님, 김홍수 선생님, 채이석 선생님 4분

성동 평화의 집 : 이강서 신부님, 김종수 선생님, 수녀님 3분

인천 참여자치연대 : 유진수 선생님, 박은희 선생님 2분

1. 독립문 평화의 집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

(1) 종로구 무악동 독립문 평화의 집의 사명과 목적 또는 목표

독립문 평화의 집은 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지역 주민의 경제력 향상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그 활동으로는 한술밥 도시락 생산 협동체를 지원하고 지역 중장년 여성을 위한 가사 관리인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② 지역 주민을 위해 긴급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활동으로는 한화 봉사단이 지원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 또한 가정 간호사를 통해 독거노인에게 간호 지원을 연결하며,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③ 지역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독립문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카우트를 지원하며, 특히 무지개 스카우트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④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이번 사업과 가장 연관이 되는 임대아파트 및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임차인 참여지원을 통한 주민 임파워먼트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 독립문 평화의 집의 사명과 목적 또는 목표에 대한 신부님과 실무자들의 인터뷰

천주교의 빈민사목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부님께서 바라본 독립문 평화의 집의 사명과 목적은 주민들의 생활과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empowerment) 또한 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신학을 중심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지역을 만드는 데 노력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의를 위한 민주주의적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한다. 평화의 집 실무자 분들은 주민 조직을 만들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며,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이 평화의 집의 목표로 삼고 있다. 어려운 이웃들이 서로 구분 없이 모두 잘 살

1) 천주교 서울 대교구의 빈민 사목의 설립 배경은 다음과 같다.

빈민지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강제 철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교회의 사목적 배려가 절실한 배경으로 설립되었다. 평화의 집은 빈민사목의 정신과 목적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에 따라 빈민사목(선교본당)의 대 지역사회 창구”로서 지역 빈민운동과의 지원과 연대를 통해 기초생활공동체들을 활성화 한다. 또한 저 소득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신앙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채이석 선생님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과 가정의 비밀사를 도와주면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 임대아파트와 옆의 분양 아파트와의 좋지 않은 관계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분양아파트 주민이 임대아파트 주민을 무시하는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지역 청소년 문제 때문에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가난한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고 -돈이-없는 사람도 편하게 사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3) 활동

신부님은 독립문 지역에 90년 2월에 소수의 가톨릭 신자와 접촉하면서 빈민 계층을 중심으로 공부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94년부터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세입자의 교육 및 조직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99년 선교 본당이 설립되면서 주민들과 한술밥 대표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신부님은 신앙을 가진 주민들과 매일매일 모임을 갖고 있으며 그분들은 8명 정도이다. 이분들과의 관계는 개인 기도를 포함한 삶과 관련된 상담이 중심을 이룬다. 또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주민들과 매일 매일 인사를 한다. 스카우트 모임은 매주 1번씩 이루어지며, 스카우트 대원들과는 1달에 1번의 모임을 갖는다. 공부방 활동에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인사를 나누는 정도이다. 주민 조직 간의 교류는 대부분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드물게 이루어진다. 가끔 주민들의 행사에 참여하며, 활동가들과의 만남과 계획이 신부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부님께서서는 대외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주민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실무자 두 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신부님은 빈민 사목과 교육을 계획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 하신다.

평화의 집 실무자 동경희 선생님은 1999년부터 지역을 위한 활동을 시작 하였다. 지역 주민들과 일주일에 1 ~ 3번 정도의 모임을 갖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이슈가 생기는 때마다 주민과의 모임에 참여한다. 이슈가 있을 때 주

민과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슈가 없을 때 만남이 유지되고 관계가 형성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주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사람들의 동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고, 술잔을 기울이는 부분이 많다. 자원 봉사를 연결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함께 동참하며 주민과 봉사 간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평화의 집 실무자 김홍수 선생님은 2002년부터 활동을 시작 하였다. 한 달에 10번 이상 주민들과 접촉하며, 주민들과 만나면 지역 주민들 간의 대화에서 중간자 입장에 서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중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가치를 정하려 한다.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실현이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중간자의 입장에 서서 반영하려 한다. 하지만 주민들 간의 충돌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채이석 선생님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다. 무악동을 중심으로 임대아파트를 위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동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관리 업무를 총체적으로 주도 하고 있다.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스카우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4) 변화

먼저 신부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 천주교 빈민 사목이 없었다면 무악 마을(69세대)이 재개발 철거로 이주 단지가 없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구청에서 철거를 묵인하고 있었고, 주민들이 자신의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강제 철거되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구청의 싸움이 있었다. 주민들의 요구에 동참하여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여 그들이 공공임대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재개발로 인한 강제 철거 상황에서 그것을 막아내었다. 신부님 개인적으로는 공동체를 만들기 어렵지만 그 점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무악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를 만드는데 무악 마을 사람들과 신부님을 비롯한 실무자들 간의 관계가 생겨났으며, 지역 사람들 간의 임차인 대표회의가 생겨난 것이 중요한 변화임을 지적하였다.

처음에 평화의 집이 일자리를 연결하고 지역을 위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기초 서비스 지원에만 머물렀지만, 지금은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조직화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점이 변화임을 지적하였다.

다른 분은 주민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음을 지적하였다. 지역 주민들 간에 이기주의가 팽배하였지만, 선생님들의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 점을 가장 큰 변화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지역 주민간의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한 점이 또 다른 변화임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분은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달라진 점이 가장 큰 변화임을 지적하였다. 스카우트 활동이 있기 전에는 분양 아파트 아이들이 임대아파트 아이들을 멸시하고 무시하였고, 부모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랑 놀지 말아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처음에는 사람을 피하고 숨어 지내던 아이들이 활력 있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매우 큰 성취감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무악동 지역의 교장을 만나고 아이들의 활동을 홍보하면서 학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아이들의 불량스러운 행동이 줄어들고, 스카우트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동사무소와 종로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성과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모든 걸 함께 어우러지는 반응이 일어났다.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취감이 커지고, 그것에서 우리 지역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 하였다.

1-1 독립문 평화의 집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주민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주거 안정에 대한 주민들과 인터뷰 중 무악동 임대 아파트 10가구 중에서 독립문 평화의 집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 2가구를 만날 수 있었

다. 어르신 두 분께서 평화의 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 독립문 평화의 집을 통해 어르신들이 예전에 비하여 더 주민들 간의 이해가 늘어난 점을 지적하였다. 주민들과의 만남과 모임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문 평화의 집을 중심으로 무악동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인터뷰 당시에도 연구자의 인터뷰에 성실히 대답 해주었으나, 이에 반하여 평화의 집이 활동하지 않는 종로구 옥천동 주민들은 인터뷰에 잘 응해주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악동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평화의 집을 중심으로 연구한다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과 호응을 보임으로써 주민들이 평화의 집 활동에 관심이 있으며 시민단체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다는 점을 느꼈다. 평화의 집은 무악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평화의 집이 활동하지 않는 옥천동의 주민들은 인터뷰를 통한 연구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시민단체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연구의 시도에 대하여 무척 회의적이었다.

무악동에 살고 있는 채이석 선생님의 인터뷰를 통해 임대아파트 주민들 간의 마찰이 줄어들고, 특히 평화의 집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시민단체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아파트의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심어짐으로써 주민들 역시 평화의 집에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동 평화의 집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

(1) 성동 평화의 집의 사명과 목적 또는 목표

성동평화의 집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이웃과 같은 존재를 지향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상담하고, 일자리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고민과 생활고를 상담한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금호동 무료 한방진료소’

를 통하여 한방 진료를 진행한다. 이 활동과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한의사의 왕진이 있다. ②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족을 위한 이발과 미용 봉사가 있다. ③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방과 후 공부방 및 전문가와의 상담을 연결하는 활동을 한다. ④ 실직자를 위한 구인과 구직 상담 등의 지원 사업 활동을 한다. ⑤ 아동 위탁 시설 및 그룹 홈을 연결하는 활동을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 ⑥ 주민 자활 협동 공동체 교육 및 협조가 이루어진다.

(2) 성동 평화의 집의 사명과 목적 또는 목표에 대한 신부님과 실무자들의 인터뷰

신부님은 평화의 집이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이 우선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점이 평화의 집의 기본 목표임을 지적 하셨다. 우선 가난한 이들을 공동체로 이끌면서 그 사람들이 고립되지 않고 삶을 나누며 살아가길 바란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역 사회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길 바란다. 그런 의식을 기반으로 조직화가 되길 바란다. 또한 주민들의 자주적인 프로그램인 생협과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고 그런 일을 함께 함으로써 발전하고 서로 지지하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성동 평화의 집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부님은 지역 사회가 통합되길 원하며, 지역 자치에서 마을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목표이다. 교육과 의료,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세입자로 전락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지역 주체임을 깨닫고 지역 공동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주민들의 생활 정치력을 스스로 높임으로써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갖는 것이 성동 평화의 집의 사명과 목표이다.

김중수 선생님은 복지보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역 복지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연대가 이루어지는 활동이 평화의 집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 실무자 외에 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조하고,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

고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평화의 집이 되길 바란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동 평화의 집이 의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3) 활동

이강서 신부님은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말동무가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며, 주민들의 그룹에 한달에 한번 분야별로 모임이 있다. 최소 한달에 2번 이상 주민들과의 만남이 있다. 우선 소비자 생협 활동과 주민자치 분야 활동, 자활 분야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 생명 분야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중수 선생님은 매주 수요일 한방 무료 진료에 참여하시고,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무료 진료 시에 자원 봉사 활동을 하시며, 주민들과 수시로 모임이 있다. 스카우트 모임과 임대아파트 주민과의 모임, 지역 단체와의 모임에서 활동 하면서 주민들과 매우 자주 만남을 갖고 있다.

(4) 변화

3년 동안 지역 사회 발전 센터를 통해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조직화와 함께 임대아파트 자치회가 주변 지역에 몇 군데씩 생겨나기 시작 했고, 자치회가 없는 동네에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자치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 했다. 금호 행당동 지역에 자치회가 생겨났고, 주민 자치회와 임대아파트 자치 협의회가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평화의 집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의 신상이 향상 되었고, 생활고를 비롯한 어려웠던 주민들의 문제점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평화의 집이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평화의 집이 주고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또한

주민들에게 많은 역할을 평화의 집이 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3. 인천 참여자치연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

(1) 인천 참여 자치 연대의 사명과 목적 또는 목표

희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아파트 공동체 운동을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실천 활동과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지원, 하자·보수 상담,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의정 감시 활동을 통한 부패정치인 고발 운동을 하며, 예산 감시활동과 주민 자치운동을 한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 복지운동과 지방 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자치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인천 참여 자치 연대의 사명과 목적 또는 목표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터뷰

유진수 선생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맑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주민자치 활동 등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추진해 가는 것이 인천 참여 자치연대의 목표라고 제시 하였다.

박은희 선생님은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대안을 찾는 활동 모색하는 것이 참여 자치연대의 목표라 생각한다.

(2) 활동

인천 참여 자치연대는 주민들과 접촉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사실상 사무처 상근자가 주민들과 직접 모임을 갖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러나 활동기구 중 하나인 주민자치운동본부는 어린이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 활동을 하고 있고, 때때로 사무처 담당 상근자가 결합하기도 한다. 2005년 활동은 아니었지만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모임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나 ‘아파트분양 원가 공개 운동’등을 통해 모임 진행되었으나 사업이 종료되거나 해결되고 난후 지속적인 모임이 진행되지 않아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유진수 선생님은 올해는 지역주민과 밀착도를 높이는 활동을 준비하는 중이며, 어린이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육사업과 주거복지센터 설립추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박은희 선생님은 현재 주민 리더십 교육이나 자원 활동가 교육 등에 참여함으로써 활동하고 있다.

(3) 변화

유진수 선생님은 개인과 지역, 그리고 단체에 각기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우선 개인의 차원에서 행정 감시 활동이 가장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으며, 단체의 차원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변화된 것이라고 본다.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변화된 점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을 살펴보았을 때 다양한 계층, 부문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생겨난 것이 변화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건강성 담보한 시민단체가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와 변화를 만들어 내었다.

박은희 선생님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냄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변화점으로 지적하였다.

4. 세 지역(독립문 평화의 집, 성동 평화의 집, 인천 참여자치연대)의 시민 단체에 대한 비교 연구

구분	독립문 평화의 집	성동 평화의 집	인천 참여자치연대
지역 활동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방 활동 * 한술밥 * 스카우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한방진료 *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이발과 미용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 감시 활동을 통한 부패정치인 고발 운동 * 예산 감시활동
주민들과 의 만남 (한달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달에 10번 정도 의 만남이 이루어짐 * 지역 모임이 생길 때마다 만남이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로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음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안에서 복지기관 및 주민과의 연대를 하고 있음 *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실천 활동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지원 * 소외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역 복지운동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민사목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스카우트 활동이 두드러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며, 주민들과 평화의 집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과 활동이 미약함 * 부패정치인 고발, 예산 감시활동 등 시민단체의 활동을 할 수 있음

부록 2. FOCUS GROUP 토의 내용 녹취록

녹취 기록 1

날짜 : 2005년 10월 14일 금요일

시간 :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장소 : 금호동 대우 제2아파트

작성 : 홍성혜

들어가며..

저녁 8시에 박문수 신부님, 김홍수 선생님, 유진수 선생님, 박은희씨와 저와 함께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9분이 모였습니다. 아주머님 8분과 아저씨 1분이 저희 조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이 8시에 모이기 시작하였고, 총 인원이 확인 된 후에 신부님께서 이번 Focus 그룹 인터뷰를 하는 목적에 대하여 신부님께서 간략하게 주민들(인터뷰 대상자들)께 이번 인터뷰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후 각자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인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서먹서먹한 가운데 김홍수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 : 낯선 곳에 금호동 주민들과 다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있어서 조용하고 조금 서먹서먹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소개를 하면서 이 모임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습니다. 또한 신부님께서 이 연구에 대한 설명과 자료(녹음과 비디오)의 사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

서 주민들이 긴장을 조금 풀어가는 듯 했습니다. 단어 사용 역시 실제 생활에서 쓰여 지는 단어로 사용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1) Q :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느낌

좋다 : 5명 / 보통이다 : 2명 / 안 좋다 : 2명

좋은 이유

- ① 작은 공간이지만 자기 공간이 있다. 공기도 좋은 편이다. 조용한 분위기가 좋다.
- ② 주민들은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 불편하다. 그리고 교통도 불편하다.
- ③ 산이 있어 공기가 좋고, 교통도 나름대로 좋다. 녹지대가 있어서 좋다.
- ④ 이웃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살기가 좋다. 비록 집은 좁지만 만족한다.
- ⑤ 작지만 자기(내) 공간이 있어서 좋다. 산, 강 등이 있어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서 환경이 좋다.
- ⑥ 서로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것이 좋다.
- ⑦ 이곳에 나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좋다.

보통인 이유

- ① 처음에는 살기 좋고 분위기가 좋았으나, 주민들이 남 이야기를 하면서 안 좋아 졌다. 그리고 공간이 좁아서 좀 불편하지만 주변 환경이 좋아서 보통이다.
- ② 지하철이 멀지만 그래도 교통이 좋은 편이다. 집이 좋은지 나쁜지는 지하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정도면 보통인 것 같다.
- ③ 집이 있어도 낯설다. 개가 너무 짝어서 좋지 않다. 너무 시끄럽다. 저번에 살던 동네와는 달리 이웃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 ④ 계단이 많아 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또한 교통이 가까운지 멀리 있는지 등

의 교통의 유무가 문제가 된다.

안 좋은 이유

- ① 지하철이 멀어서 교통이 안 좋다.
- ② 첫째는 교통편이 안 좋다.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싫다. 이웃집이 너무 소란해서 잠을 잘 수 가 없다. 항의 했으나 애들이 욕설을 퍼붓고, 담배를 많이 피워서 냄새가 배서 옷을 널을 수 가 없다.
- ③ 시끄러워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난다.
- ④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다. 이웃이 마음에 안 든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
- ⑤ 가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방음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다.
- ⑥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다. 전기요금에 비리가 있는 것 같다. 부녀회장이 비리를 저질러서 쫓겨난 경우도 있었다. 세금도 많이 나가기도 한다. 공동주거 관련에 대한 의혹이 많아서 그것이 싫고 답답하다.

◆ 분위기 :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회자가 주민들의 불만을 하나하나 들어주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사회자의 이끌어 나감에 따라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시작 되었다.

2) Q : 좋은 집 (동네 / 공간)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①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선량한 이웃, 마음 맞는 사람들. 결국 좋은 이웃
- ② 사람들 눈치 안보고 무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
- ③ 꼭대기라도 잔디가 있는 스머프 집 같은 곳, 풀밭이 있는 곳. 녹지 공간이

필요함.

- ④ 문화시설 등의 공부방이 있었으면 좋을 듯. 회의할 공간. 복지 및 자치 지원 공간이 필요함.
- ⑤ 방이 1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 ♣ 이것에 모두들 공감하는 분위기 였음.
- ⑥ 내 집이 있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 내 집이 있을 경우에는 감나무, 대추나무 등의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 ☞그림 같은 집, 그림 같은 초원에 살고 싶다. 이제는 집이 사람에 맞추어 산다고 한다.
- ⑦ 넓은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계단이 너무 많아서 이동이 불편하다. 교통편의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 ⑧ 가든파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고 싶고 예를 들어 치매노인을 모시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아닌 다른 분을 보살피드리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싶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갖추어졌으면. 치매노인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같은 농촌을 원한다. 농촌이 아닌 도시 속의 농촌. 또한 가까운 곳의 생활 편의가 좋았으면 좋겠고 복지 시설의 위치도 좋았으면 좋겠다. 넓은 마당과 정원.
- ⑨ 위와 비슷하다.

◆ 분위기 :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생각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정도 대화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불만이 아닌 자신들이 꿈꾸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점차 밝아졌다. 모두들 조금씩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3) Q : 구입이 아닌 집 (주거 공간) 마련을 어떻게 했는가?

전세 보증금, 월세, 임대료 등등을 어떻게 마련해왔는가?

예를 들어 은행대출, 친척의 도움, 자가 마련, 친구의 도움, 사채, 무기여보상금(로또당첨과 같은 형제)

☞ 23개의 단어 중에서 좋은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박스에 담기

자가 마련 : 3명 /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은행대출 : 2명 / 친언니에게 빌림 : 1명 / 자녀가 모아둔 돈 빌림 : 1명 / 친척의 도움 : 1명 / 아는 언니에게 빌림 : 1명

- ① 세 분은 자가 마련
- ② 은행에서 대출 조금 받았고 큰 부담은 본인이 부담하였다. 잔액을 은행 대출로
- ③ IMF때 거지가 됐다. 쫓겨나다시피 해서. (눈물을 보이심) 아는 언니가 도움을 줘서, 일수식 변제로 조금씩 갚아 나감. ♣ IMF 상황에 대해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음.
- ④ 나이 많으신 어머님 세대는 스스로 마련하셨지만 30대 정도의 사람들은 초기자본인 큰 부담은 친척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작은 돈은 본인이 부담하였다.
- ⑤ 딸이 대학 가려고 벌어들였던 돈을 받아서 집 마련에 쓰고, 딸이 다시 대출 받았음. (딸)가족이 대출 받아서 집 마련을 하였고, 조금 평수가 넓어져서 살기는 조금 좋아졌다.
- ⑥ 친언니가 돈을 빌려주었다. 직장에 들어가서 껌돈을 모은 것을 받아서 집을 샀다.
- ⑦ 본인이 거의 마련하고 나머지는 은행의 대출을 받았다.

◆분위기 : 물론 개인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생각나서 눈물을 보이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 어두웠다. 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했기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모두들 자신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이야기 해주었고, 힘들어 하셨던 주부님께서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4. 정부의 지원인 공식 지원 / 일반 지원 (서민)

/ 보장형 지원 (사회 보장형태) 급여에서 사회 보험으로 즉 영세민 지원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학자들이 사용하는 명칭과 제도의 명칭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봄.

- ① 주거 급여 : 이 단어에 대해 아시거나 들어본 분이 한 명도 없었음. **0명**
- ② 전세 대출 지원(국민, 농협, 우리 은행에서 지원하는 것. 동사무소가 아님)
: 9분 중에서 5분이 알고 있음 **5/9 명**
- ③ 최저 주거 기준 : 이 단어에 대해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음. **0명**

4인으로 구성된 한 가족이 사는 주거 공간이 국가에서 명시된 기준이 몇 평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주민이 없었음. 게다가 이러한 개념이 있는 줄 알고 있던 주민이 단 한명도 없었음. 국가에서 지정한 4인으로 구성된 한 가족이 살아야 하는 최저 평수가 11.2평인데, 현재 제2 대우아파트의 평수는 9.8평이었음. 주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 국가에서 정한 법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조건이라는 것에 당황스러워 했음.

☞ 팀장님이 “언제 쫓겨날지 모를 불안함 없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함.

4) Q : 우리 국민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꼭 지켜야 될 1가지씩을 말해 달라. 대한민국이 이것은 꼭 해야 한다.

① 아이들에게 작지만 조그만 방이라도 마련해주려고 전세 대출을 받으려 갔으나 국가에서 빠꾸 받음. 남편이 실직을 하여 봉급 명세서가 없어서 대출을 못 받았음. “없는 사람일 수록 따져요. 없는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갚을 수 있잖아요. 정말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안 해줘요. 서러워요.” “너무 복잡하고 뭐 떼어와라, 뭐 떼어와라..”

☞ 어려운 국민을 위한 대출시 대출 조건보다 상황 능력을 보고 대출해주기를

바란다.

② 저 소득의 중간계층이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잖아요. / 사실 집은 사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집은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임대아파트를 더 넓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임대 아파트를 더 활성화해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없잖아요”

③ 임대 주택에서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때는 지금 임대아파트보다 조금 더 넓은 임대 아파트로 옮겨 가고 싶다.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조금 더 넓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임대주택 (공공 주택) 간의 주거 이전이 보장 되었으면 좋겠다.

④ 임대료가 한달에 135,000이 나왔는데 겨울에는 20만원이 나왔다. 전기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못 내서 전기를 자르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 임대료가 비싼거 아닌가요?

☞ 공공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는 그 아파트에 맞게 측정되어서 나온다. 그러나 소득 수준에 맞는 임대료를 책정했으면 좋겠다.

◆ 분위기 : 국가에서 지정한 4인으로 구성된 한 가족이 살아야하는 최저 평수가 11.2평인 데, 현재 제2 대우아파트의 평수는 9.8평이었음. 주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 국가에서 정한 법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조건이라는 것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사회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조금 동요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자신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인터뷰가 왜 중요성을 갖는지를 인식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잔잔한 호수가에 작은 돌을 던져 작은 동요가 일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사회은행’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몰입 되는 것 같았다. 굳이 예를 들자면 Marx가 지식인들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자본

가가 그들을 착취했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어 프롤레타리아들이 조금씩 동요를 시작하는 것 같았다.

두 번째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에 대해 주민들은 비싸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사회자가 임대료는 그 당시의 물가를 비롯한 공공의 수준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이후에는 주민들이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나오며..

박문수 신부님께서 이 연구에서 ‘주거급여’라는 단어를 모르는 채로 주민들이 국가의 보장제도를 알 수는 없다는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 대부분이 그 사실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였고, 많은 공감을 하는 것 같았다. 주민들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작지만 무언가를 얻은 듯 하였고, 우리의 연구의 방향도 점 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가는 것 같다. 회장님께서서는 주거가 복권처럼 재산 증식을 사용되는 것이 문제이며,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해 주민들은 조금씩 수긍하는 것 같았다.

녹취 기록 2

날짜 : 2005년 10월 26일 수요일

시간 : 오후 7시 50분부터 오후 9시 10분까지

장소 : 인천시 ...구 청천동 햇살 어린이집

작성 : 홍성혜

들어가며..

10월 26일 오후 7시 40분에 인천시 청천동 어린이 집에서 김종수 선생님, 김홍수 선생님, 박은희 선생님, 백미화 선생님과 저와 함께 주민 14분이 모였습니다. 주로 청천동 주민이신 아주머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아주머님 14분이 모여서 저희 조사에 참여해주셨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미리 모여 계셨고, 총 인원이 확인 된 후에 김홍수 선생님께서 이번 Focus 그룹 인터뷰를 하는 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주민들(인터뷰 대상자들)께 인터뷰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후 각자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어졌고, 주민들은 대부분 아시는 상황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서울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친근한 가운데 김홍수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 분위기 : 주민들이 대부분 서로 알고 지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지역 인터뷰 보다는 조금 더 활기찬 분위기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조사원들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모여 있었던 점이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더욱 편한 분위기를 갖도록 했던 것 같다.

☞ 이번 인터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판서하지 않은 채로 조사원이 직접 받아쓰고 내용을 녹음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준비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바로 바로(즉흥적으로) 느낌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판서 대신 녹음으로 하였다.

1) Q :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느낌

① 91년에 이 동네로 이사를 하였고 7-8년을 거주하였는데, 9년부터 우리나라와 이 동네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많다. 외국인들이 많다. 그래서 지저분하기도 하다. 옆 방에 피해를 준다. 자신들(필리핀 사람들)은 노는 방식이 있다. 필리핀 사람들이 낮에도 놀고, 저녁에도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서 이웃 주민이 잠을 못

지게 한다. 조심성이 없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없다. 외국인들이 그들의 음식을 먹다보면 벌레가 생긴다. 바퀴벌레도 생기고 불이 난다고 해도 소방차가 길이 좁아서 오질 못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외국 애들이 많다. 청천동에 약간 오염-여기서 오염은 외국인들이 주변환경을 나쁘게 만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살면서 환경에 오염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먼지도 많고 벌레가 생겨서 남의 집에 침범하기도 한다. 먹고 자기도 하면서 깨끗하지가 않다. 벌레들이 들어온다.

집 주인은 (전제들) 안 놓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세를 놓게 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천동 집이 싸졌다. 가스렌지를 잘 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폭발 위험성도 있고, 가스 밸브도 불안정하다. 그래서 방을 옮겼다.

② 대부분 안 좋다는 반응이 많았다.

③ 청천동이 좋은데 그 이유는 산이 가까이 있어서 좋다. 생태공원이 있어서 공기가 좋다. 그리고 햇살 공부방과 햇살 어린이집이 있어서 너무 좋다. 어린이집이 오래돼서 17년인데, 그것 때문에 여기가 힘을 받는 것 같다. 이것을 중심으로 좋은 것 같다.

④ ①번을 말씀하셨던 분께서 이야기 시작하심. 가정집이 별로 없다. 남자 분들끼리 사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집주인이랑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름에 창문을 열면 못 볼 걸 많이 본다. 남자들이 혼자 있으면 벗고 다닌다. 가정집이 아니라서 혼자 사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못 볼 걸 많이 본다. 그래서 문을 닫고 산다. 주인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이 내보낸다고 했다.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한다. 열어놓으면 얼떨결에 쳐다보다가 민망해진다. 동네가 남자들이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인 환경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데 불편이 있다.

☞ 이웃이 좋아야 한다.

⑤ 이웃이 너무 자기 위주로만 산다. 골목이 있으면 “여기는 내 집이야, 여기는 내 땅이야”라고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 차 댈 충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웃간에 정이 없다. 너무 개인 위주이고, 따진다. 개인 집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놀 공간이 부족해져버리고, 아이들이 도로에서 노니까 불안하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한사람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

☞ 같이 사용해야 될 공간을 자기꺼다라고 테두리를 치는 모습들. 동네서 어울리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는 모습들.

⑥ 위 아래층의 소음이 있었다. 아래층 할아버지가 소음에 너무 민감해서 부천에서 청천동으로 이사를 왔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너무 좋다. 이웃간에 사이가 좋다. 그래서 이사 갈 마음이 없다. 살만하고 주차공간이 적당하고 사람들이 서로 주차공간을 양보한다. 서로 간에 이해를 해주니까 좋다.

☞ 이웃 말고 교통이나 평수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⑦ 아파트에 사는데, 불만은 없다.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니까 불안하다. 애들을 혼자 보내기가 불안하다. 주택으로 선풍 이사를 못가는 이유가 일단 주차문제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애들 놀이터 시설이 일반 주택은 별로 없어서 아이들이 놀 데가 없다. 그러나 아파트는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평상(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곳)을 중간 중간에 해놨다. 그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일반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환경을 봐서는 이사를 못가겠다. 아이들 놀이터를 가려고 해도 멀고 아파트 안에서는 차 속도를 제한해서 애들이 자전거를 타도 되는데, 이런 환경을 버리고 이만한 여건을 가진 주택이 없다.

현관문을 나가면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좋다.

☞ 주변 환경 때문에 주택으로 가고 싶지만, 안전망 때문에 이사 가기가 힘들다.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파트 안에서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움직이니까 그것이 좋다.

☞ 일반 주택과 아파트의 환경을 비교해본다면?

아파트도 살기 나름인 것 같다.

◆ 분위기 :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셨고,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님들이 많아서 특히 아이들의 환경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자녀의 교육 환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며, 소음문제를 비롯한 주민 이기주의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다. 대부분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들이 하나 정도씩은 있었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조금 형성되었던 것 같다.

2) Q. : 제일 살기 좋은 집과 제일 살기 좋은 동네는 어떤 것인가? 나에게 딱 맞는 좋은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 무엇이 있으면 좋은가?

① 마음 맞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웃간의 사이가 좋으면 된다. 주민들과의 좋은 관계가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 같다. 이웃간에 서로 뜻이 맞아서 그런 동네를 만들면 된다.

☞ 서로 공동체로 가까워 가는 이웃,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이웃.

② 외부 공간에도 자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외국 같지는 않아도 열린 공간이 있었으면. 마당이 있었으면

③ 담 없이 잘 살 수 있는, 내가 집을 짓는다면 유리가 많은 집이었으면 좋겠다.

☞ 탁 트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시야가 넓어 탁 트이고 편안한 공간. 주변이 탁 트인 공간.

④ 아이들이 차 위험이 없는 공간. 우리나라 집들이 아파트들 빼고는 너무 어둡다. 채광이 너무 어둡다. 빛이 별로 안 들어오고, 캄캄하다. 거진 다 채광이

안 좋다. 약간의 시야가 있어서 남의 집을 안 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공간. 집 간격을 조금 넓혀서 지었으면 좋겠다. 시야 공간과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채광과 통풍이 되는 공간. 햇빛이 잘 들면 애들을 키우기도 좋다.

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위화감이 있다. 아이들이 유학을 가지 않고서도 공부할 수 있는 동네였으면 좋겠다.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동네처럼, 여기는 영국 저기는 미국과 같은 동네처럼 외화를 낭비하면서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⑥ 집이 너무 좁다. 그래서 아주 넓은 집이었으면 좋겠다.

⑦ 불편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들(손자들)이 오면 좁으니, 아이들이 와서 놀아도 좁지 않은 집이었으면 좋겠다.

⑧ 마당이 넓은 집이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 근거리엔 운동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환경의 차이도 결정적인 것이다. 그런 격차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공간에 가면 공원도 넓은데, 지역적으로 격차가 없었으면 좋겠다. 지역이 낙후되면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택시기사가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돈을 내도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불편하다.

⑨ 여름, 겨울에 습기나 곰팡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부 환경이 쾌적했으면 좋겠다.

⑩ 우선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 외국애들이 많아서 잠자는 데에 불편이 있다. 외국인들이 서로 간에 예의가 없다. 우리는 자야하는데 주변이 시끄럽기도

하다.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서 학교에 가서 논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네를 타고 놀 공간이 부족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놀 공간인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⑪ 새집으로 이사 갔는데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피부병 고생 안하도록 지었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아파트 이름이 외래화 된 것 같다. 요즘은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이름을 어렵게 짓는다는 농담이 있다. 아파트 이름만 바꾸고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⑫ 전원 주택에 사는 것이 꿈이지만 다른 것보다도 종합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⑬ 이 동네가 고양이가 많다. 동물들을 터치해주면 좋겠다.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면 고양이가 와서 다 뜯어 놓는다. 마지막으로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

◆ 분위기 : 그림같은 집과 같은 비현실적인 것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아이들이 놀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았다. 주거 환경에서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고, 아픈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병원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다.

3) Q : 몇 년간 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였는데, 800-1000만원이 모자라서 전세를 들어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일반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한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이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 ② 친구나 친정 엄마나 형제에게 빌린다.
- ③ 나머지 돈을 회사에서 가불 받아서 갚는다.
- ④ 사채는 절대 안 쓰고 아파트 전세를 포기한다.

☞ 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

① 고리대금업자가 아닌 사채를 쓴다. 고리 이자인 사채이지 악덕 업자인 사채는 아니다. 즉, 정식 금융기관으로 허가 받지 않은 경우이다.

♣ 4분

② 절대 사채는 쓰지 않는다. 차라리 집을 포기한다. 형제나 부모님께 빌리지 못하면 아예 포기를 하겠다.

♣ 1분 ←이분은 직장에서 가불을 받아서 나머지 금액을 집주인과 상의하여 갚아 나간다고 대답하심.

◆ 분위기 : 포기한다는 분도 있으시고, 대부분은 부모, 형제, 자매, 친구에서 빌려온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악덕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빌려서 쓰겠다는 분들이 많은 편이었다. 한분은 절대 사채를 쓰지 않겠다고 하셨다.

4) Q : 4인 가족이 살아야 할 평수를 들어보셨는지? (최저 주거 기준)

♣ 3분은 들어보셨다고 대답함. 4분은 전혀 못 들어보셨다고 대답함.

◆ 분위기 : 김홍수 선생님께서 주민들께 몇 평이 4인 가족(아들딸을 포함한)이 거주하는 최저 평수가 몇 평인지를 질문드렸고, 여러 주민들이 10평, 14평, 24평, 16평, 8평, 25.7평, 32평, 11평, 20평, 27평이라도 다양한 평수로 답해주셨다. 하지만 그것이 11.2평이라는 대답을 듣고 모두들 동의 혹은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1인 최저 주거비용이 3.6평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5) Q : 최저 생계비를 들어보셨나요?

♣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는 주민들 모두 들어보았다고 대답하였다.

6) Q : 주거 급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한 분도 못 들어보셨다고 대답하였다.

◆ 분위기 : 김홍수 선생님께서 주거 급여가 수급권자에게 나가는 정책인데, 실제적으로 주거 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주가가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 하는 분위기였다. 주거 급여를 처음으로 접하는 주민들은 조금 놀라워하기도 하고 그러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 했다. 공감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역시 서울지역에서와 같은 분위기였다. 주거 급여를 처음 접하는 주민들에게 그러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일깨워 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주민들은 주거급여라는 정책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거급여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 이었던 것 같다.

부록 3. 면접도구

순번 :

주거안정의 관점에서 보는
주거급여의 적절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사단법인 한국 도시연구소

1.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그 동네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좋은 점 :

• 나쁜 점 :

2.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런 점을 다 생각해서 이 집과 동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① 아주 불만(☞ 2.1번) ② 불만(☞ 2.1번)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 2.2번) ⑤ 아주 만족(☞ 2.2번)

2.1 그 대답을 선택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만족을 표현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이집에 언제부터 살고 계셨습니까?()

- ① 2000년 10월 이후(☞ 3.1번)
 ② 2000년 10월 이후(☞ 4번)

3.1 현재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적이 당하거나 소득이 줄어 들어서
 ② 이전 주택의 임대료가 올라서
 ③ 재개발 등으로 철거가 되어서
 ④ 이전 주택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⑤ 소득 향상 및 저축 증대
 ⑥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⑦ 가족수가 변하거나 결혼 등으로 새로 가정을 꾸려서

⑧ 기타()

3.2 현재의 집과 이 전에 살았던 집을 비교 하였을 때 어떠셨습니까?()

① 더 좋다. ② 같다. ③ 더 나쁘다.

3.3 집이 좋아졌다면 어떤 면에서 더 좋은가요?

4. 혹시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① 예(☞ 4.1번) ② 아니요

4.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실적이 당하거나 소득이 줄어 들어서

② 이전 주택의 임대료가 올라서

③ 재개발 등으로 철거가 되어서

④ 이전 주택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⑤ 소득 향상 및 저축 증대

⑥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⑦ 가족수가 변하거나 결혼 등으로 새로 가정을 꾸려서

⑧ 기타()

5.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만족이나 불만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해 드린 표를 보시고 대답 해 주시겠습니까?

내 용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 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건물의 하자(누수, 균열, 방음, 단열 등)					
2. 습기					
3. 채광, 통풍					
4. 면적					
5. 방의 수					
6. 상수도, 하수도					
7. 부엌					
8. 화장실					
9. 목욕시설					
10. 난방시설					
11. 시장 등 상가시설					
12. 병원					
13. 공원, 녹지, 놀이터					
14. 주변지역의 소음, 악취, 쓰레기 수거					
15. 도둑, 비행청소년 등 치안문제					
16. 사생활 보호					
17. 자녀 교육환경					
18. 화재, 축대붕괴 등 안전문제					
19. 주차문제					
20.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21. 이웃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6.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
 ⑤ 아파트 ⑥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⑦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상가, 공장 등) ⑧ 비닐하우스, 움막, 판자집 ⑨ 임시가건물 ⑩ 기타 ()

7. 주택의 점유 형태는?

- ① 자기집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 ⑤ 사글세 ⑥ 무상 ⑦ 기타 ()

8. 귀택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은?()평

9. 몇 층에서 살고 있습니까?()

- ① 지하 층 ② 반 지하층 ③ 지상 1층 ④ 지상 2층 이상 ⑤ 옥탑 층

10. 보여드린 표를 참고하시어 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 형태에 대해 말씀 해주십시오.

시 설 내 용	보 기	비 고
방(침실)	방()개	총 평수 확인
거실(부엌 겸), 마루	()개	총 평수 확인
부엌(독립형태)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공동사용인 경우 ()세대 사용
	① 입식 ② 재래식	
화장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공동사용인 경우 ()세대 사용
	① 수세식 ② 재래식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공동사용인 경우 ()세대 사용 * 목욕시설 : 집안에서 목욕할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
	① 온수시설 있음 ② 온수시설 없음	
난방방식	① 연탄온돌	

시 설 내 용	보 기	비 고
	② 연탄보일러 ③ 기름, 가스 보일러 ④ 난로 ⑤ 전기 장판 ⑥ 전기 판넬 ⑦ 기타()	
출입구(대문)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공동사용인 경우 ()세대 사용
하수도	① 있음 ② 없음	
상수도	① 있음 ② 없음	
전기시설	① 계량기 단독 사용 ② 계량기 공동 사용 ③ 없음	공동사용인 경우 ()세대 사용

11. 귀댁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명
12. 부부나 미혼자녀 중에서 집이 좁아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13. 현재 5세 이상의 자녀가 부부와 함께 침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③ 미 해당

14. 현재 9세 이상의 남·녀 자녀가 함께 침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미 해당

다음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귀댁의 수입과 지출 및 주거비용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의 원칙을 다시 한번 더 약속 드리며,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귀하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5.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이 자기 집인 경우에 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 매입 당시의 가격 : ()만원

16. 현재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현재 임차료 :

- 전세 : 보증금()만원
- 월세 : 보증금()만원, 월세()만원

* 사글세인 경우 월세로 환산해서 표시해 주시오.

17. 현 주택의 주택구입비용 혹은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조 달 방 법	금 액	비 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	만원	신청한 곳 ²⁾ :
개인에게서 빌린 금액	만원	①부모②형제③친척④친구 ⑤사채업자 ⑥기타()
자기 자금	만원	

2) 근로자,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은 지자체를 경유하여 신청해야 하고 이것을 취급하는 은행은

18. 현재 주택의 구입 혹은 임차를 위해 빌리거나 용자받은 돈은 어떻게 갚습니까?

- ① 일시불 상환 ② 여유 있을 때 마다 목돈으로 상환 ③ 매달()만원씩 상환
④ 기타 ⑤ 미 해당(빌리거나 용자받은 돈이 없다)

19. 현재 가구의 수입과 지출, 저축, 빚은 얼마입니까?

- 월평균³⁾ 가구 총 수입 :()만원
- 월평균 가구 총 지출 :()만원
- 월평균 가구 저축액 :()만원
- 빚 : ()만원

20. 매월 지급해야 하는 생활과 관련된 비용을 질문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2005년 10월이니, 지난 달 생활비로 소비한 금액을 생각하시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파 트		일 반 주 택	
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료 포함)		가스 사용요금	
기타 비용		전기 사용요금	
		수도 사용요금	
		기타 비용	
합 계(원)		합 계(원)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농협, 우리은행이기에, 은행이름으로 답변하는 주민들 중에서 일반 대출과 전세자금 지원 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신청한 곳으로 표현하였음. 은행명은 그대로 기입하고, 지자체를 경유하여 신청한 것은 해당 지자체 명을 기입할 것.

3) 조사 대상이 되는 분들의 소득 격차가 예상되기에, 특정 월의 소득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며, 1년동안 노동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다음은,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어떤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21. 다음 내용 중에 들어 보신 것이 있다면 대답해 주시고, 누구(무엇)를(을) 통해 들어 셧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주거급여 : 들은 경험(있다, 없다) / ()를(을) 통해 들었다.
- 영구임대아파트 : 들은 경험(있다, 없다) / ()를(을) 통해 들었다.
- 공공임대아파트 : 들은 경험(있다, 없다) / ()를(을) 통해 들었다.
- 국민임대아파트 : 들은 경험(있다, 없다) / ()를(을) 통해 들었다.
-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 지원 사업단
: 들은 경험(있다, 없다) / ()를(을) 통해 들었다.
- 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 제도
: 들은 경험(있다, 없다) / ()를(을) 통해 들었다.
- 최저 주거기준 : 들은 경험(있다, 없다) / ()를(을) 통해 들었다.
- 최저 생계비 : 들은 경험(있다, 없다) / ()를(을) 통해 들었다.

22. 주거급여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에서 보호받는 분들에게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중에서 월세 지원 등을 포함하여 집값을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3. 이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이제는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 주변 환경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24. 동네 주변 환경을 잘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4.1) ② 없다.

24.1 누구입니까?

25. 이웃 관계는 어떻습니까?

26. 이웃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7. 혹시 주변 환경 개선이나 이웃간의 친목 도모를 추진하는 단체를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귀 닥의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8. 귀 닥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⁴⁾

표를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세대주와의 관계	성 별	나 이	경제활동 유무 ⁵⁾
세대주			

4) 조사원은 답변의 내용을 확인하여, 11번 문항에서 답변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5) 완전 실업상태로서 전혀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일용직 등의 여러 형태로 편차가 있더라도 소득이 생기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기록은 '별고 있다. 못 별고 있다.'로 기록할 것.

부록 4. 최저주거기준(2000년 고시)

최저주거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260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생활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면적 기준

가구원 수(인)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m ²)
1	1 K	12 (3.6평)
2	1 DK	20 (6.1평)
3	2 DK	29 (8.8평)
4	3 DK	37 (11.2평)
5	3 DK	41 (12.4평)
6	4 DK	49 (14.8평)
7이상	4 DK	52 (15.8평)

* K : 부엌, DK :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의 수

2. 시설 기준

- 침실 : 부부침실 확보 · 만5세 초과 자녀는 부부와 침실 분리 · 만8세 이상
異性 자녀는 침실 분리 · 노부모 침실은 부부침실과 분리
-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 및 전용 화장실 확보

3. 구조 · 성능 · 환경 기준

-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 · 내화 · 방열 · 방습에 양호한 재질일 것
- 적절한 방음 · 환기 · 채광 · 냉방 · 난방 설비를 갖출 것
- 소음 · 진동 · 악취 ·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할 것

부록 5. 부록 표

<부록 표 1> 지역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인천영구	40	13.9	13.9	13.9
	청천동	84	29.2	29.2	43.1
	만석동	14	4.9	4.9	47.9
	복성동	22	7.6	7.6	55.6
	무악_공공	8	2.8	2.8	58.3
	무악_단독	12	4.2	4.2	62.5
	금호행당_공공	41	14.2	14.2	76.7
	금호4가_주택	21	7.3	7.3	84
	면목_영구	38	13.2	13.2	97.2
	면목_단독	8	2.8	2.8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2>귀택이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그 동네에 대한 느낌이 어떨습니까? - 좋은점 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조용하다	8	2.8	4.5	4.5
	채광	12	4.2	6.7	11.2
	공기	21	7.3	11.8	23
	공원/산책/녹지	12	4.2	6.7	29.8
	살기_편함	42	14.6	23.6	53.4
	주변시설(시장/병원)	8	2.8	4.5	57.9
	대중교통	19	6.6	10.7	68.5
	이웃과의 관계	24	8.3	13.5	82
	교육환경	4	1.4	2.2	84.3
	집_건물	16	5.6	9	93.3
	주거환경	7	2.4	3.9	97.2
	기타	5	1.7	2.8	100
합계	178	61.8	100		
결측	무응답	110	38.2		
합계	288	100			

<부록 표 3>귀댁이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그 동네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 좋은점 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채광	1	0.3	1.4	1.4
	공기	13	4.5	18.1	19.4
	공원/산책/녹지	10	3.5	13.9	33.3
	살기_편함	9	3.1	12.5	45.8
	주변시설(시장/병원)	7	2.4	9.7	55.6
	대중교통	7	2.4	9.7	65.3
	이웃과의 관계	7	2.4	9.7	75
	교육환경	9	3.1	12.5	87.5
	집_건물	4	1.4	5.6	93.1
	주거환경	3	1	4.2	97.2
	기타	2	0.7	2.8	100
	합계	72	25	100	
결측	비해당	97	33.7		
	무응답	119	41.3		
	합계	216	75		
합계		288	100		

<부록 표 4>귀댁이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그 동네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 단점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소음	16	5.6	9.1	9.1
	위험	4	1.4	2.3	11.4
	청결	7	2.4	4	15.3
	주변_환경	24	8.3	13.6	29
	집_크기	23	8	13.1	42
	집_불편	40	13.9	22.7	64.8
	교통	6	2.1	3.4	68.2
	이웃	7	2.4	4	72.2
	내부환경	15	5.2	8.5	80.7

	집_좁다	5	1.7	2.8	83.5
	주차문제	4	1.4	2.3	85.8
	지역발전미비	1	0.3	0.6	86.4
	기타	24	8.3	13.6	100
	합계	176	61.1	100	
결측	비해당	2	0.7		
	무응답	110	38.2		
	합계	112	38.9		
합계		288	100		

<부록 표 5>귀댁이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그 동네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 단점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소음	3	1	3.8	3.8
	청결	3	1	3.8	7.7
	주변_환경	13	4.5	16.7	24.4
	집_크기	6	2.1	7.7	32.1
	집_불편	14	4.9	17.9	50
	교통	2	0.7	2.6	52.6
	이웃	8	2.8	10.3	62.8
	내부환경	10	3.5	12.8	75.6
	집_좁다	5	1.7	6.4	82.1
	주차문제	3	1	3.8	85.9
	지역발전미비	3	1	3.8	89.7
	기타	8	2.8	10.3	100
	합계	78	27.1	100	
결측	비해당	89	30.9		
	무응답	121	42		
	합계	210	72.9		
합계		288	100		

<부록 표 6>이 집과 동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주_불만	36	12.5	12.6	12.6
	불만	62	21.5	21.8	34.4
	그저_그렇다	107	37.2	37.5	71.9
	만족	77	26.7	27	98.9
	아주_만족	3	1	1.1	100
	합계	285	99	100	
결측	무응답	3	1		
합계		288	100		

<부록 표 7>이집에 몇 년 몇 월부터 살고 계셨습니까? - 이사온 년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89년 이전	37	12.8	13.2	13.2
	90~94년	30	10.4	10.7	23.8
	95~99년	57	19.8	20.3	44.1
	2000년 이후	157	54.5	55.9	100
	합계	281	97.6	100	
결측	무응답	6	2.1		
	시스템 결측값	1	0.3		
	합계	7	2.4		
합계		288	100		

<부록 표 8>이집에 몇 년 몇 월부터 살고 계셨습니까? - 이사온 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	1.4	3.7	3.7
	2	7	2.4	6.5	10.3
	3	18	6.3	16.8	27.1
	4	9	3.1	8.4	35.5
	5	16	5.6	15	50.5
	6	2	0.7	1.9	52.3
	7	4	1.4	3.7	56.1
	8	3	1	2.8	58.9
	10	26	9	24.3	83.2
	11	15	5.2	14	97.2
	12	3	1	2.8	100
	합계	107	37.2	100	
결측	무응답	90	31.3		
	시스템 결측값	91	31.6		
	합계	181	62.8		
합계		288	100		

<부록 표 9>현재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소득_감소	23	8	18.4	18.4
	임대료_인상	11	3.8	8.8	27.2
	철거	18	6.3	14.4	41.6
	집주인_요구	8	2.8	6.4	48
	재산_증대	2	0.7	1.6	49.6
	직장_학교	12	4.2	9.6	59.2
	가족수_변화	4	1.4	3.2	62.4
	기타	47	16.3	37.6	100
	합계	125	43.4	100	
결측	비 해당	156	54.2		
	무응답	7	2.4		
	합계	163	56.6		
합계		288	100		

<부록 표 10>현재의 집과 이 전에 살았던 집을 비교 하였을 때 어떠셨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더_좋다	54	18.8	42.2	42.2
	같다	22	7.6	17.2	59.4
	더 나쁘다	52	18.1	40.6	100
	합계	128	44.4	100	
결측	비 해당	156	54.2		
	무응답	4	1.4		
	합계	160	55.6		
합계		288	100		

<부록 표 11>집이 좋아졌다면 어떤 면에서 더 좋은가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자연환경	3	1	5.5	5.5
	주거환경	38	13.2	69.1	74.5
	이웃	2	0.7	3.6	78.2
	그냥_그렇다	1	0.3	1.8	80
	기타	11	3.8	20	100
	합계	55	19.1	100	
결측	비해당	156	54.2		
	무응답	77	26.7		
	합계	233	80.9		
합계		288	100		

<부록 표 12>집이 더 나빠졌다면, 어떤 면에서 더 나쁜가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자연환경	1	0.3	2	2
	주거환경	41	14.2	83.7	85.7
	기타	7	2.4	14.3	100
	합계	49	17	100	
결측	비해당	156	54.2		
	무응답	83	28.8		
	합계	239	83		
합계		288	100		

<부록 표 13>혹시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예	121	42	48.6	48.6
	아니요	128	44.4	51.4	100
	합계	249	86.5	100	
결측	무응답	39	13.5		
	합계	288	100		

<부록 표 14>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때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소득_감소	9	3.1	7.4	7.4
	임대료_상승	3	1	2.5	9.9
	집주인_요구	3	1	2.5	12.4
	주거_환경_개선_필요	88	30.6	72.7	85.1
	직장_학교	5	1.7	4.1	89.3
	가족수_변화	3	1	2.5	91.7
	기타	10	3.5	8.3	100
	합계	121	42	100	
결측	비해당	167	58		
	합계	288	100		

<부록 표 15>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건물의 하자(누수,균열, 방음, 단열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56	19.4	19.4	19.4
	약간_불만	61	21.2	21.2	40.6
	보통	102	35.4	35.4	76
	약간_만족	56	19.4	19.4	95.5
	매우_만족	13	4.5	4.5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16>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습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64	22.2	22.2	22.2
	약간_불만	62	21.5	21.5	43.8
	보통	79	27.4	27.4	71.2
	약간_만족	72	25	25	96.2
	매우_만족	11	3.8	3.8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17>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채광_통풍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83	28.8	28.8	28.8
	약간_불만	58	20.1	20.1	49
	보통	60	20.8	20.8	69.8
	약간_만족	65	22.6	22.6	92.4
	매우_만족	22	7.6	7.6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18>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면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55	19.1	19.2	19.2
	약간_불만	93	32.3	32.4	51.6
	보통	78	27.1	27.2	78.7
	약간_만족	50	17.4	17.4	96.2
	매우_만족	11	3.8	3.8	100
	합계	287	99.7	100	
결측	무응답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19>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방_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64	22.2	22.3	22.3
	약간_불만	71	24.7	24.7	47
	보통	85	29.5	29.6	76.7
	약간_만족	58	20.1	20.2	96.9
	매우_만족	9	3.1	3.1	100
	합계	287	99.7	100	
결측	무응답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20>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상_하수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10	3.5	3.5	3.5
	약간_불만	39	13.5	13.5	17
	보통	85	29.5	29.5	46.5
	약간_만족	118	41	41	87.5
	매우_만족	36	12.5	12.5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21>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부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40	13.9	14	14
	약간_불만	84	29.2	29.4	43.4
	보통	89	30.9	31.1	74.5
	약간_만족	58	20.1	20.3	94.8
	매우_만족	15	5.2	5.2	100
	합계	286	99.3	100	
결측	무응답	2	0.7		
합계		288	100		

<부록 표 22>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화장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73	25.3	25.3	25.3
	약간_불만	69	24	24	49.3
	보통	75	26	26	75.3
	약간_만족	58	20.1	20.1	95.5
	매우_만족	13	4.5	4.5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23>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목욕시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85	29.5	29.6	29.6
	약간_불만	62	21.5	21.6	51.2
	보통	79	27.4	27.5	78.7
	약간_만족	49	17	17.1	95.8
	매우_만족	12	4.2	4.2	100
	합계	287	99.7	100	
결측	무응답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24>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난방시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27	9.4	9.4	9.4
	약간_불만	50	17.4	17.4	26.7
	보통	61	21.2	21.2	47.9
	약간_만족	128	44.4	44.4	92.4
	매우_만족	22	7.6	7.6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25>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시장 등 상가시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59	20.5	20.5	20.5
	약간_불만	95	33	33	53.5
	보통	80	27.8	27.8	81.3
	약간_만족	42	14.6	14.6	95.8
	매우_만족	12	4.2	4.2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26>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병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61	21.2	21.2	21.2
	약간_불만	85	29.5	29.5	50.7
	보통	73	25.3	25.3	76
	약간_만족	58	20.1	20.1	96.2
	매우_만족	11	3.8	3.8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27>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공원_녹지_놀이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29	10.1	10.2	10.2
	약간_불만	59	20.5	20.7	30.9
	보통	112	38.9	39.3	70.2
	약간_만족	63	21.9	22.1	92.3
	매우_만족	22	7.6	7.7	100
	합계	285	99	100	
결측	무응답	3	1		
합계		288	100		

<부록 표 28>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주변지역의 소음_악취_쓰레기 수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31	10.8	10.8	10.8
	약간_불만	69	24	24	34.7
	보통	98	34	34	68.8
	약간_만족	71	24.7	24.7	93.4
	매우_만족	19	6.6	6.6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29>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도둑, 비행청소년 등 치안문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29	10.1	10.1	10.1
	약간_불만	80	27.8	27.9	38
	보통	110	38.2	38.3	76.3
	약간_만족	52	18.1	18.1	94.4
	매우_만족	16	5.6	5.6	100
	합계	287	99.7	100	
결측	무응답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30>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사생활_보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21	7.3	7.3	7.3
	약간_불만	54	18.8	18.8	26
	보통	116	40.3	40.3	66.3
	약간_만족	91	31.6	31.6	97.9
	매우_만족	6	2.1	2.1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31>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자녀 교육환경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43	14.9	15.5	15.5
	약간_불만	115	39.9	41.4	56.8
	보통	85	29.5	30.6	87.4
	약간_만족	34	11.8	12.2	99.6
	매우_만족	1	0.3	0.4	100
	합계	278	96.5	100	
결측	무응답	10	3.5		
합계		288	100		

<부록 표 32>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화재, 축대붕괴 등 안전문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29	10.1	10.2	10.2
	약간_불만	51	17.7	18	28.3
	보통	94	32.6	33.2	61.5
	약간_만족	101	35.1	35.7	97.2
	매우_만족	8	2.8	2.8	100
	합계	283	98.3	100	
결측	무응답	4	1.4		
	시스템 결측값	1	0.3		
	합계	5	1.7		
합계		288	100		

<부록 표 33>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주차문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71	24.7	25.4	25.4
	약간_불만	71	24.7	25.4	50.7
	보통	97	33.7	34.6	85.4
	약간_만족	34	11.8	12.1	97.5
	매우_만족	7	2.4	2.5	100
	합계	280	97.2	100	
결측	무응답	8	2.8		
합계		288	100		

<부록 표 34>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79	27.4	27.5	27.5
	약간_불만	60	20.8	20.9	48.4
	보통	62	21.5	21.6	70
	약간_만족	69	24	24	94.1
	매우_만족	17	5.9	5.9	100
	합계	287	99.7	100	
결측	무응답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35>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해서 - 이웃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_불만	4	1.4	1.4	1.4
	약간_불만	65	22.6	22.6	24
	보통	131	45.5	45.5	69.4
	약간_만족	63	21.9	21.9	91.3
	매우_만족	25	8.7	8.7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36>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단독주택	16	5.6	5.6	5.6
	다가구	79	27.4	27.4	33
	다세대주택	58	20.1	20.1	53.1
	연립주택	7	2.4	2.4	55.6
	아파트	126	43.8	43.8	99.3
	복합용도주택	2	0.7	0.7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37>주택의 점유 형태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자가	40	13.9	13.9	13.9
	전세	74	25.7	25.8	39.7
	보증부_월세	144	50	50.2	89.9
	월세	23	8	8	97.9
	사글세	3	1	1	99
	무상	3	1	1	100
	합계	287	99.7	100	
결측	무응답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38>귀댁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평 미만	116	40.3	40.6	40.6
	10~15평 미만	107	37.2	37.4	78
	15~20평 미만	45	15.6	15.7	93.7
	20평 이상	18	6.3	6.3	100
	합계	286	99.3	100	
결측	무응답	1	0.3		
	시스템 결측값	1	0.3		
	합계	2	0.7		
합계		288	100		

<부록 표 39> 몇 층에서 살고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지하층	17	5.9	6	6
	반지하층	48	16.7	16.8	22.8
	지상1층	86	29.9	30.2	53
	지상2층이상	132	45.8	46.3	99.3
	옥탑층	2	0.7	0.7	100
	합계	285	99	100	
결측	무응답	3	1		
합계		288	100		

<부록 표 40> 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 형태 - 방_침실(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46	16	16	16
	2	208	72.2	72.2	88.2
	3	33	11.5	11.5	99.7
	4	1	0.3	0.3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41> 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 형태 - 거실(부엌 겸)_마루(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없음	18	6.3	6.9	6.9
	1	243	84.4	93.1	100
	합계	261	90.6	100	
결측	무응답	27	9.4		
합계		288	100		

<부록 표 42>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 형태 - 부엌_사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단독사용	281	97.6	97.9	97.9
	공동사용	4	1.4	1.4	99.3
	없음	2	0.7	0.7	100
	합계	287	99.7	100	
결측	무응답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43>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 형태 - 부엌_형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입식	251	87.2	89	89
	재래식	31	10.8	11	100
	합계	282	97.9	100	
결측	무응답	6	2.1		
	합계	288	100		

<부록 표 44>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 형태 - 화장실_사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단독사용	244	84.7	84.7	84.7
	공동사용	44	15.3	15.3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45>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 형태 - 화장실_형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수세식	237	82.3	84	84
	재래식	45	15.6	16	100
	합계	282	97.9	100	
결측	무응답	6	2.1		
	합계	288	100		

<부록 표 46>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 형태 - 욕실_사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단독사용	225	78.1	78.1	78.1
	공동사용	9	3.1	3.1	81.3
	없음	54	18.8	18.8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47>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 형태 - 온수_유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온수_있음	258	89.6	95.9	95.9
	온수_없음	11	3.8	4.1	100
	합계	269	93.4	100	
결측	무응답	19	6.6		
합계		288	100		

<부록 표 48>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 형태 - 난방방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연탄온돌	1	0.3	0.3	0.3
	연탄보일러	5	1.7	1.7	2.1
	기름_가스보일러	230	79.9	79.9	81.9
	전기장판	7	2.4	2.4	84.4
	전기판넬	1	0.3	0.3	84.7
	기타	44	15.3	15.3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49>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 형태 - 출입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단독사용	229	79.5	79.5	79.5
	공동사용	59	20.5	20.5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50>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 형태 - 하수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음	287	99.7	100	100
결측	무응답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51>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 형태 - 상수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음	288	100	100	100

<부록 표 52>주거 시설의 종류와 사용 형태 - 전기시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계량기_단독	249	86.5	86.5	86.5
	계량기_공동	39	13.5	13.5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53>귀덕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0	24.3	24.3	24.3
	2	71	24.7	24.7	49
	3	68	23.6	23.6	72.6
	4	66	22.9	22.9	95.5
	5	9	3.1	3.1	98.6
	6	4	1.4	1.4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54>부부나 미혼자녀 중에서 짐이 좁아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없다	255	88.5	88.9	88.9
	1명	24	8.3	8.4	97.2
	2명	5	1.7	1.7	99
	3명	1	0.3	0.3	99.3
	4명_이상	2	0.7	0.7	100
	합계	287	99.7	100	
결측	무응답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55>현재 5세 이상의 자녀가 부부와 함께 침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예	43	14.9	45.3	45.3
	아니오	52	18.1	54.7	100
	합계	95	33	100	
결측	미해당	192	66.7		
	무응답	1	0.3		
	합계	193	67		
합계		288	100		

<부록 표 56>현재 9세 이상의 남·녀 자녀가 함께 침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예	31	10.8	35.2	35.2
	아니오	57	19.8	64.8	100
	합계	88	30.6	100	
결측	미해당	198	68.8		
	무응답	2	0.7		
	합계	200	69.4		
합계		288	100		

<부록 표 57>현재 살고 계신 주택이 자기 집인 경우 - 주택_가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0만원 미만	10	3.5	30.3	30.3
	1000~2000만원 미만	6	2.1	18.2	48.5
	2000~3000만원 미만	9	3.1	27.3	75.8
	3000만원 이상	8	2.8	24.2	100
	합계	33	11.5	100	
결측	비해당	248	86.1		
	무응답	7	2.4		
	합계	255	88.5		
합계		288	100		

<부록 표 58>현재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경우 - 전세_보증금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0만원 미만	10	3.5	15.6	15.6
	1000~2000만원 미만	12	4.2	18.8	34.4
	2000~3000만원 미만	26	9	40.6	75
	3000~4000만원 미만	11	3.8	17.2	92.2
	4000만원 이상	5	1.7	7.8	100
	합계	64	22.2	100	
결측	비해당	214	74.3		
	무응답	10	3.5		
	합계	224	77.8		
합계		288	100		

<부록 표 59>현재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경우 - 월세_보증금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00만원 미만	59	20.5	42.1	42.1
	200~600만원 미만	38	13.2	27.1	69.3
	600~1000만원 미만	12	4.2	8.6	77.9
	1000~1400만원 미만	14	4.9	10	87.9
	1400~2000만원 미만	3	1	2.1	90
	2000만원 이상	14	4.9	10	100
	합계	140	48.6	100	
결측	비해당	118	41		
	무응답	30	10.4		
	합계	148	51.4		
합계		288	100		

<부록 표 60>현재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경우 - 월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4만원 미만	14	4.9	8	8
	4~10만원 미만	56	19.4	32.2	40.2
	10~15만원 미만	44	15.3	25.3	65.5
	15~20만원 미만	16	5.6	9.2	74.7
	20~25만원 미만	9	3.1	5.2	79.9
	25~30만원 미만	2	0.7	1.1	81
	30~35만원 미만	6	2.1	3.4	84.5
	35~40만원 미만	1	0.3	0.6	85.1
	40만원 이상	26	9	14.9	100
	합계	174	60.4	100	
결측	비해당	114	39.6		
합계		288	100		

<부록 표 61>현 주택의 주택구입비용 혹은 보증금 - 금융기관_대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정부기관	9	3.1	56.3	56.3
	비정부_기관	7	2.4	43.8	100
	합계	16	5.6	100	
결측	비 해당	230	79.9		
	무응답	42	14.6		
	합계	272	94.4		
합계		288	100		

<부록 표 62>현 주택의 주택구입비용 혹은 보증금 - 개인_금액_대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부모	13	4.5	24.5	24.5
	형제	11	3.8	20.8	45.3
	친척	8	2.8	15.1	60.4
	친구	12	4.2	22.6	83
	사채	2	0.7	3.8	86.8
	기타	7	2.4	13.2	100
	합계	53	18.4	100	
결측	비 해당	198	68.8		
	무응답	37	12.8		
	합계	235	81.6		
합계		288	100		

<부록 표 63> 현재 주택의 구입 혹은 임차를 위해 빌리거나 용자받은 돈은 어떻게 갚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일시불	4	1.4	4.8	4.8
	수시	26	9	31.3	36.1
	월정액	22	7.6	26.5	62.7
	기타	31	10.8	37.3	100
	합계	83	28.8	100	
결측	비해당	153	53.1		
	무응답	52	18.1		
	합계	205	71.2		
합계		288	100		

<부록 표 64> 월평균 가구 총 수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50만원 이하	100	34.7	38.3	38.3
	51~70만원 미만	12	4.2	4.6	42.9
	70~90만원 미만	29	10.1	11.1	54
	90~110만원 미만	33	11.5	12.6	66.7
	110~130만원 미만	13	4.5	5	71.6
	130~150만원 미만	13	4.5	5	76.6
	150~200만원 미만	27	9.4	10.3	87
	200~250만원 미만	22	7.6	8.4	95.4
	250만원 이상	12	4.2	4.6	100
합계		261	90.6	100	
결측	무응답	27	9.4		
합계		288	100		

<부록 표 65> 주거급여 : 들은 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20	6.9	7	7
	없다	267	92.7	93	100
	합계	287	99.7	100	
결측	무응답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66>주거급여 : ()를(을) 통해 들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동사무소	7	2.4	43.8	43.8
	TV	6	2.1	37.5	81.3
	이웃	1	0.3	6.3	87.5
	통반장	1	0.3	6.3	93.8
	신문	1	0.3	6.3	100
	합계	16	5.6	100	
결측	비해당	268	93.1		
	무응답	4	1.4		
	합계	272	94.4		
합계		288	100		

<부록 표 67>영구임대아파트 : 들은 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252	87.5	87.5	87.5
	없다	36	12.5	12.5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68>영구임대아파트 : ()를(을) 통해 들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동사무소	35	12.2	17.5	17.5
	TV	116	40.3	58	75.5
	이웃	29	10.1	14.5	90
	통반장	8	2.8	4	94
	신문	5	1.7	2.5	96.5
	기타	7	2.4	3.5	100
	합계	200	69.4	100	
결측	비해당	36	12.5		
	무응답	52	18.1		
	합계	88	30.6		
합계		288	100		

<부록 표 69>공공임대아파트 : 들은 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150	52.1	52.1	52.1
	없다	138	47.9	47.9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70>공공임대아파트 : ()를(을) 통해 들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동사무소	12	4.2	8.8	8.8
	TV	100	34.7	73.5	82.4
	이웃	13	4.5	9.6	91.9
	통반장	5	1.7	3.7	95.6
	신문	3	1	2.2	97.8
	기타	3	1	2.2	100
	합계	136	47.2	100	
결측	비해당	138	47.9		
	무응답	14	4.9		
	합계	152	52.8		
합계		288	100		

<부록 표 71>국민임대아파트 : 들은 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136	47.2	47.2	47.2
	없다	152	52.8	52.8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72>국민임대아파트 : ()를(을) 통해 들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동사무소	4	1.4	3.4	3.4
	TV	94	32.6	81	84.5
	이웃	8	2.8	6.9	91.4
	통반장	3	1	2.6	94
	신문	3	1	2.6	96.6
	기타	4	1.4	3.4	100
	합계	116	40.3	100	
결측	비해당	152	52.8		
	무응답	20	6.9		
	합계	172	59.7		
합계		288	100		

<부록 표 73>매입임대주택 : 들은 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40	13.9	13.9	13.9
	없다	248	86.1	86.1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74>매입임대주택 : ()를(을) 통해 들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TV	25	8.7	73.5	73.5
	이웃	8	2.8	23.5	97.1
	기타	1	0.3	2.9	100
	합계	34	11.8	100	
결측	비해당	248	86.1		
	무응답	6	2.1		
	합계	254	88.2		
합계		288	100		

<부록 표 75>집수리 사업단 : ()를(을) 통해 들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동사무소	14	4.9	19.7	19.7
	TV	31	10.8	43.7	63.4
	이웃	7	2.4	9.9	73.2
	통반장	16	5.6	22.5	95.8
	신문	1	0.3	1.4	97.2
	복지관	2	0.7	2.8	100
	합계	71	24.7	100	
결측	비해당	207	71.9		
	무응답	10	3.5		
	합계	217	75.3		
합계		288	100		

<부록 표 76>집수리 사업단 : 들은 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81	28.1	28.1	28.1
	없다	207	71.9	71.9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77>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 제도 : 들은 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134	46.5	46.7	46.7
	없다	153	53.1	53.3	100
	합계	287	99.7	100	
결측	무응답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78>은행 전세자금 지원 대출 제도 : ()를(을) 통해 들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동사무소	17	5.9	16.8	16.8
	TV	60	20.8	59.4	76.2
	이웃	14	4.9	13.9	90.1
	통반장	6	2.1	5.9	96
	신문	2	0.7	2	98
	기타	2	0.7	2	100
	합계	101	35.1	100	
결측	비해당	153	53.1		
	무응답	34	11.8		
	합계	187	64.9		
합계		288	100		

<부록 표 79>최저 주거기준 : 들은 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23	8	8.1	8.1
	없다	262	91	91.9	100
	합계	285	99	100	
결측	무응답	3	1		
합계		288	100		

<부록 표 80>최저 주거기준 : ()를(을) 통해 들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동사무소	1	0.3	5.6	5.6
	TV	16	5.6	88.9	94.4
	통반장	1	0.3	5.6	100
	합계	18	6.3	100	
결측	비해당	264	91.7		
	무응답	6	2.1		
	합계	270	93.8		
합계		288	100		

<부록 표 81> 최저_생계비 : 들은 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152	52.8	53	53
	없다	135	46.9	47	100
	합계	287	99.7	100	
결측	무응답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82> 최저_생계비 : ()를(을) 통해 들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동사무소	39	13.5	30.2	30.2
	TV	77	26.7	59.7	89.9
	이웃	5	1.7	3.9	93.8
	통반장	4	1.4	3.1	96.9
	복지관	1	0.3	0.8	97.7
	기타	3	1	2.3	100
	합계	129	44.8	100	
결측	비해당	135	46.9		
	무응답	24	8.3		
	합계	159	55.2		
합계		288	100		

<부록 표 83> 주거급여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에서 보호 받는 분들에게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중에서 월세 지원 등을 포함하여 집값을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알고있다	41	14.2	14.2	14.2
	모른다	247	85.8	85.8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84>귀택에서 현재 또는 과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받고있다	120	41.7	41.7	41.7
	과거에받았다	21	7.3	7.3	49
	없다	147	51	51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85>동네 주변 환경을 잘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52	18.1	18.1	18.1
	없다	123	42.7	42.9	61
	모르겠다	112	38.9	39	100
	합계	287	99.7	100	
결측	무응답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86>동네 주변 환경을 잘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 누구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통반장	20	6.9	55.6	55.6
	동대표	8	2.8	22.2	77.8
	구의원	2	0.7	5.6	83.3
	부녀회	6	2.1	16.7	100
	합계	36	12.5	100	
결측	비해당	236	81.9		
	무응답	16	5.6		
	합계	252	87.5		
합계		288	100		

<부록 표 87>이웃사촌의 표현이 있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의 이웃 관계는 어떻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보통	67	23.3	25.3	25.3
	좋다	123	42.7	46.4	71.7
	나쁘다	19	6.6	7.2	78.9
	모름	56	19.4	21.1	100
	합계	265	92	100	
결측	무응답	23	8		
합계		288	100		

<부록 표 88>이웃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인사하기	26	9	15.6	15.6
	대화하기	14	4.9	8.4	24
	관심갖기	20	6.9	12	35.9
	좋은분위기만들기	10	3.5	6	41.9
	기타	46	16	27.5	69.5
	모른다	51	17.7	30.5	100
	합계	167	58	100	
결측	무응답	121	42		
합계		288	100		

<부록 표 89>단체를 알고 있습니까?(알고 있는 지역관련 단체가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36	12.5	14.6	14.6
	모른다	210	72.9	85.4	100
	합계	246	85.4	100	
결측	무응답	42	14.6		
합계		288	100		

<부록 표 90>(알고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친목조직	7	2.4	19.4	19.4
	주민조직	9	3.1	25	44.4
	시민단체	10	3.5	27.8	72.2
	기타	10	3.5	27.8	100
	합계	36	12.5	100	
결측	비 해당	252	87.5		
	합계	288	100		

<부록 표 91>귀댁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 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70	24.3	24.3	24.3
	2	71	24.7	24.7	49
	3	68	23.6	23.6	72.6
	4	66	22.9	22.9	95.5
	5	9	3.1	3.1	98.6
	6	4	1.4	1.4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92>귀댁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가구 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단독세대	71	24.7	24.7	24.7
	부부세대	27	9.4	9.4	34
	부모+자녀	95	33	33	67
	편부모+자녀	55	19.1	19.1	86.1
	조부모+부모+자녀	11	3.8	3.8	89.9
	조손세대	9	3.1	3.1	93.1
	친인척+부부+자녀	3	1	1	94.1
	기타	17	5.9	5.9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93>귀댁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경제활동 가
구원 수(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0	92	31.9	32.2	32.2
	1	137	47.6	47.9	80.1
	2	49	17	17.1	97.2
	3	5	1.7	1.7	99
	4	3	1	1	100
	합계	286	99.3	100	
결측	무응답	2	0.7		
합계		288	100		

<부록 표 94>귀댁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세대주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남	173	60.1	60.1	60.1
	여	115	39.9	39.9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95>귀댁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세대주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0대 이하	5	1.7	1.7	1.7
	30대~40대	113	39.2	39.2	41
	50대	54	18.8	18.8	59.7
	60대	63	21.9	21.9	81.6
	70대 이상	53	18.4	18.4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96>귀댁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세대주 경제활동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유	151	52.4	52.6	52.6
	무	136	47.2	47.4	100
	합계	287	99.7	100	
결측	무응답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97>최저주거기준 - 면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충족	224	77.8	78.3	78.3
	미달	62	21.5	21.7	100
	합계	286	99.3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7		
합계		288	100		

<부록 표 98>최저주거기준 - 방 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충족	278	96.5	99.3	99.3
	미달	2	0.7	0.7	100
	합계	280	97.2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	2.8		
합계		288	100		

<부록 표 99>최저주거기준 - 방수(가족 수 대비 방의 수에 방을 공유하는 가족의 수 등의 기준으로 추가 계산한 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충족	199	69.1	71.3	71.3
	미달	80	27.8	28.7	100
	합계	279	96.9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	3.1		
합계		288	100		

<부록 표 100>최저주거기준-부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충족	281	97.6	97.9	97.9
	미달	6	2.1	2.1	100
	합계	287	99.7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0.3		
	합계	288	100		

<부록 표 101>최저주거기준-화장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충족	244	84.7	84.7	84.7
	미달	44	15.3	15.3	100
	합계	288	100	100	

<부록 표 102>최저주거기준-전체-건 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충족	143	49.7	51.6	51.6
	1건-미달	90	31.3	32.5	84.1
	2건-미달	38	13.2	13.7	97.8
	3건-미달	5	1.7	1.8	99.6
	4건-미달	1	0.3	0.4	100
	합계	277	96.2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	3.8		
	합계	288	100		

<부록 표 103>최저주거기준-전체-충족/미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충족	143	49.7	51.6	51.6
	미달	134	46.5	48.4	100
	합계	277	96.2	1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	3.8		
	합계	288	100		